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3월호

# 리아호나

구주께서 신앙심 깊은  
여성에게 주신 축복, 32쪽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는 방법, 16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38쪽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꼬투리 안에서 자라는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종류이다. 크기를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길이가 3cm 약간 넘는  
곧은 핀을 같이 두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주님의 포근한 품에 안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오래 참고  
인내하심

특집 기사

- 16 하나님의 증인이 됨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도전 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단결하여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24 사탄의 모반  
마크 에이 매튜스  
전세에서 일어난 사탄의 모반에 관해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규칙과 표준과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8 쇠막대를 붙잡으십시오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우리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도 어떻게 쇠막대를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 32 여성을 존중하신 구주  
로버트 런드, 마리 런드  
그리스도께서 신앙심이 깊은 이 네 명의 여인을 대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다.

- 38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  
애덤 코터  
복음에 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의문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 본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어려운 주제에 관한 대화  
셰리 린 클라크
- 13 회상: 할아버지, 아버지  
애런 엘 웨스트
- 14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모든 시련은 더 큰 신앙을  
가져옵니다  
조르지아 무르지아
- 42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반석 위에  
세워진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

표지  
삽화: 람오니(선생님) 마이클 맘  
안쪽 앞표지 사진: 데이비드 스토커  
안쪽 뒤표지 사진 삽화: 코디 벨



46

- 46**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  
청년 성인들이 부모에게서 배운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일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 50** 새로운 목적지  
아만카이 코테츠카 미노  
나는 간증이 있으므로 이제 내 인생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이든 간에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안다.

- 53**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충실하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56** 누가 준비되었는지 속단하지 마십시오  
랜들 엘 리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 58** 용감하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복음을 나눌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60** 선택은 그들의 몫임을 명심하라  
복음을 성공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62** 권유하고 확인하십시오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기회를 '줄' 수 있는 열한 가지 방법



77

- 66** 비밀을 말하는 것  
데이비드 덕슨  
너무 중요해서 지킬 수 없는 비밀들도 있어요.
- 68** 언제 말해야 할까요?  
젠 핀보로우  
비밀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말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69** 특별한 증인:  
우리는 왜 연차 대회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70** 부활절 준비하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준비를 하기 위해 부활절 일주일 전에 이 활동을 활용하세요.
- 72** 친구를 이해함  
리처드 엠 롬니  
새 친구 미아가 초등학교에서 환영받는다는 기분이 들도록 매그놀리아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알아보세요.
- 74** 경전 속으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  
진 빙햄
- 76** 색칠하기
- 77** 별 아래서 들은 경전 이야기  
보니 엘 오스카슨  
별을 바라보며 오빠가 들려주는 볼몬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파스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 7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토요일에 폭 자고 일요일에 활짝 웃어요  
미쉬 바보사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일요일 아침에 잘 쉬었나요?

52

2015년 3월호 제52권, 제3호  
리아호나 1256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원:**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티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이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토,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민디 앤 래빗,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리스 윌슨

**편집 인턴:** 멜리사 하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글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런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케빈 시 뱅크스, 콘니 바스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나스 카비, 지니 제이 넬슨, 게이일 테이더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우스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88호, 제52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 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rch 2015 Vol. 39 No. 3.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 38쪽: 이 기사를 읽은 후 가정에서 질문과 의심의 차이점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질문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경전 속 인물들의 이야기(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1장; 이더서 2:19~3:16; 조셉 스미스—역사 1:10~19; 또는 본 기사 주 1에 나오는 참조 사항)를 읽는다.

그 인물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가족 중 두세 명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다음 경전, lds.org/topics, 또는 개인 경험을 활용해 답을 찾는다. 가정에서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식구들이 떠오르는 질문을 편안한 마음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부활절 준비하기”, 70쪽: 가정의 밤을 하기 전에 매일 닥뜨리는 몇 가지 문제를 종이 몇 장에 적어 두어도 좋다. 예를 들면, “형이 자기 장난감을 못 갖고 놀게 할 때 화가 나기 시작한다.” 또는 “어느 날 밤에 아빠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자녀에게 돌아가며 종이를 골라 거기에 적힌 것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구주처럼 할 수 있겠는지 말해 보라고 한다. 본 기사에 나오는 부활절 활동을 소개하고 자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7일간의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한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0, 14, 46

간증, 38, 50, 74, 77

개종, 50

경전 공부, 43, 77, 74

기도, 16, 42

물문경, 16, 77

봉사, 44, 72

부활절, 32, 70

비밀, 66, 68

사랑, 44

선교 사업, 50, 52, 56, 58, 60, 62

선지자, 45, 80

선택의지, 24, 60

속죄, 4, 52, 70

순종, 16, 24, 28, 38, 45

시련, 14, 42

신앙, 14, 32, 38

안식일, 78

양육, 10, 46

여성, 32

연차 대회, 45, 69

예수 그리스도, 4, 7, 32, 52, 70,

74

요한계시록, 38, 69, 80

우정, 66, 72

위안, 4, 14

유산, 13

은혜, 52

인내, 7

자유, 16

회개, 28, 50

회복, 80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주님의 부드러운 팔에 둘러싸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아름다운 미술 작품과 음악에서 자주 영감을 받습니다. 덴마크의 미술가 프란스 슈바르츠의 역작, *겟세마네에서의 고뇌*라는 작품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sup>1</sup>

마음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 유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는 구주를 묘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구주 곁에 선 한 천사는 팔로 조심스럽게 그분을 안고 위로하며 하늘에서 보내는 도움을 전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할수록, 제 마음과 정신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친절과 감사로 넘쳐납니다. 구주께서 세상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필멸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애정에 늘 감탄합니다. 죄 없는 아들께서 온 인류와 저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 하나님 아들의 희생

매년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기념하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셨으며, 아담의 원죄뿐 아니라 이제껏 살았던 수백억 명의 죄와 범법에 대해 영원하고 구속력이 있는, 그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런 영원하고 성스러운 희생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을] ……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교리와 성약 19:18)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희생이 지닌 소중한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면 제 영혼은 감사로 넘쳐납니다. 또한 이런 은사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그분께 돌리는 사람은 모두 자기 흠이 얼마나 검든, 자기의 짐이 얼마나 괴롭든 간에,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서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흠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의 영원한 희생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주님이 겪은 고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어둡고 비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슬픔과 비탄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와 깊은



축복된 위로와 치유, 소망과 용서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비로운 구주이자 복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주

1. 프란스 슈바르츠의 장례식에서 한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재능은 신성한 곳에서 부여받은 것으로서, 수많은 설교보다 더 값어치 있습니다.”(Emmilie Buchanan-Whitlock, “History of Artists’ Lives Gives Greater Context for Exhibit,” *Deseret News*, Sept. 29, 2013, [deseretnews.com](http://deseretnews.com))

후회가 무자비하게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그토록 사심 없이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팔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사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가르칠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 일부를 나누면서, 구주와 그분의 구속 희생에 대해 간증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속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이 “어둡고 비통한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익명

**나**에게는 과식하는 문제가 있었다. 계속해서 게걸스럽게 먹기만 하다 보니 죄책감과 좌절감, 실망감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문제를 극복하려 힘쓰는 동안 나 자신이 무척 나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구주의 속죄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완전하게 해 주며, 또한 과식이라는 불완전한 습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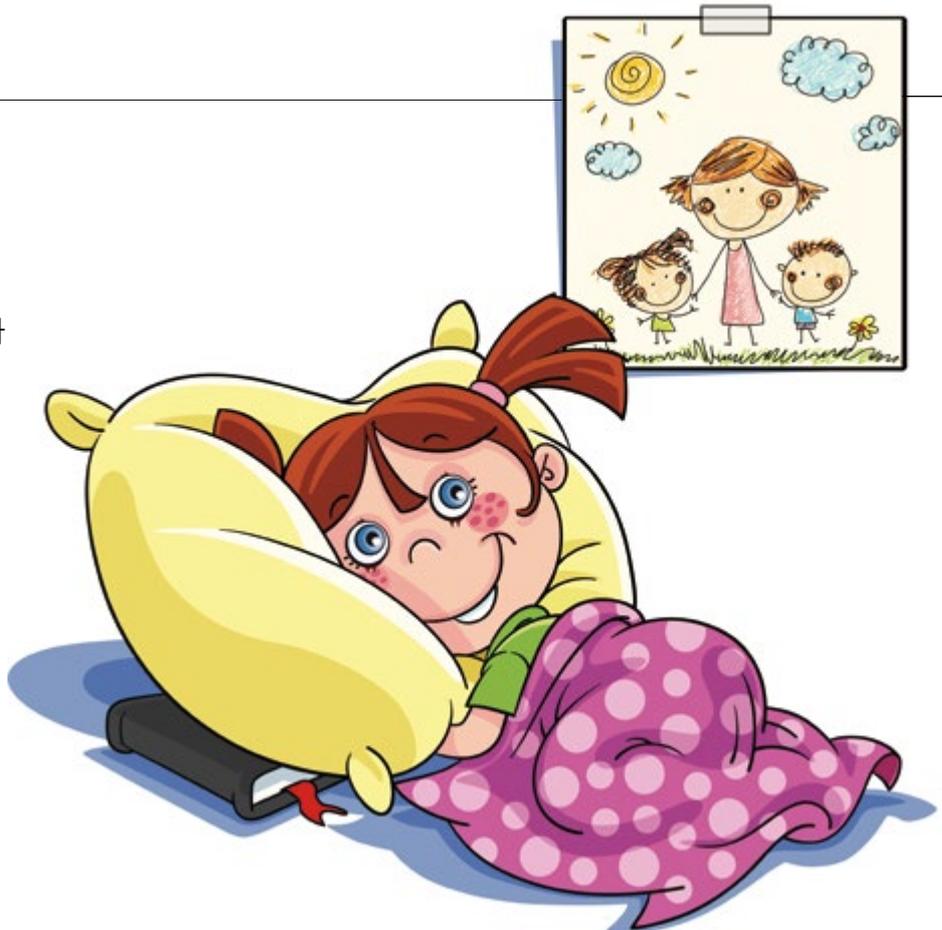
나는 구주께 나 자신을 맡기기로 마음먹고 기도를 드렸다. 내가 연약하여 그 때문에 은혜가 필요함을 진심으로 인정한 후, 내일부터 하늘의 도움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다. 그날 밤 나는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돕고자 하는 무한한 소망과 아울러 그분의 뜻을 이룰 확실한 권능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음식은 전과 같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향력을 내게 미치지 못했다. 나는 내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안다. 나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립보서 4:13)는 것을 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운 이 가르침도 절대 잊지 않으려 힘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린도전서 15:57).

### 어린이

####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가** 족이나 친구에게 구주 덕분에 위안을 느꼈던 때가 있었는지 물어본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던 때를 생각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서 침대 곁에 걸어 둔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래 참고 인내함

구주의 성품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인** 내는 흔히 조용하고 수동적인  
특성으로 생각되지만,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인내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고수하면서 …… 마음속  
바람이 지연될 때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으며 우리는 지상에 올 기회를  
받고 기뻐 소리를 질렀다.(욥기 38:7 참조)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겠다고 결심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앨마서 17:11)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내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기와 품위와  
신앙으로 그것을 대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모사이야 3:19]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내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에도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니파이전서 2:10]  
일입니다.”<sup>1</sup>

## 보충 성구

시편 40:1; 갈라디아서 5:22~23;  
베드로후서 1:6; 앨마서 17:11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7, 59쪽.

## 생각해 볼 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  
여인은 오래 인내함으로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임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가?



## 신앙, 가족, 구제

### 성구에서

경전은 우리에게 지상  
생활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려 준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위안이 되는 이런  
약속을 주신다. “이를 견디라.  
이는, 보라, 내가 참으로 네  
생애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4:8)

다음의 성경 이야기는 인내와  
신앙의 본보기이다.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 [그리스도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누가복음 8:43~48).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면 우리도 그 여인처럼 축복과  
위안뿐 아니라, 치유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고리와 성약 1:38)

2014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봄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캄보디아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그 가망 없는 일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테레사 수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이 놀라운 여성은 자신이 통계가 아닌 사랑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힘이 닿는 대로 봉사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 언론인은 기독교 정신이란 통계적인 노력을 아님이 명백하다는 분별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을까요?’ ……

…… 저는 토마스 스펜서 몬슨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 제가 죽는 날까지 그분에 관하여 간직하고 싶은 한 가지 기억은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동독에서 여러분의 양복과 셔츠뿐 아니라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주시고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모습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0, 41, 42쪽.

### 선지자의 약속



## 하늘에서 온 축복

“어쩌면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시며, 그분의 경험과 지혜, 예지는 우리보다 더 무한하게 큼니다.[이사야 55:9 참조] ……

제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늘의 거대한 창고 속에 가두어 놓고서 그분이 정하신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비처럼 끊임없이 내려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두려움, 의심, 죄가 우산이 되어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산을 접어 하늘에서 내리는 끊임없는 축복을 받게 해 주는, 사랑의 가르침이며 신성한 도움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1~122쪽.

# 빈칸 채우기

1. “크든 작든 회복된 복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_\_\_\_\_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보호를 잃게 됩니다.”(쿠엔틴 엘 쿡,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48쪽)
2.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선지자를 따르는 게 인기가 없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 하지만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_\_\_\_\_.” (캐럴 에프 맥콩키,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78쪽)
3. “사회의 부적합한 행위 수준에 맞춰 주님의 표준을 낮추는 것은 \_\_\_\_\_입니다.” (린 지 로빈스,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10쪽)
  4. “갈수록 절대성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절대적인

\_\_\_\_\_는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 무릎을 꿇[고] ……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빌립보서 2:10~11)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와서 보라”, 110쪽)

# 가정을 위한 도구 상자

“각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런 후 주님의 인도를 구하여 각 도구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93쪽.

1. 기도
2. 경전 공부
3. 가정의 밤
4. 성전 참여



점: 1. 관리화, 2. 용류, 3. 배도, 4. 교리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주제에 관한 대화

셰리 린 클라크

임상 심리사,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부** 모로서 어려움과 시련이 자녀의 성장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정에 사랑이 깃든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시련은 자녀와 굳건한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도록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제 표현이 더욱 설득적이기를 바라며, 저의 청원은 어린이들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너무 많은 수가 고독과 절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sup>1</sup>

여러분의 자녀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의 예로는 따돌림, 육설, 시험에서 하는 부정 행위, 동성애 끌리는 것, 식이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이 있다.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sup>2</sup>는 것을 아는 후기 성도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가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과

삶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여기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하겠다.

**대화로 이끄는 질문을 하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없니?” 이러한 질문은 자녀에게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했음을 알릴 뿐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하도록 문을 열어 준다. 자녀가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해 줘서 고맙고, 나를 믿어 줘서 고맙다. 네 기분이 어떤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사랑이 담긴 이러한 대답은 대화를 계속하도록 문을 열어 준다. 중요한 건 자녀가 여러분의 진심을 아는 것이다. 포용하거나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도 진심 어린 염려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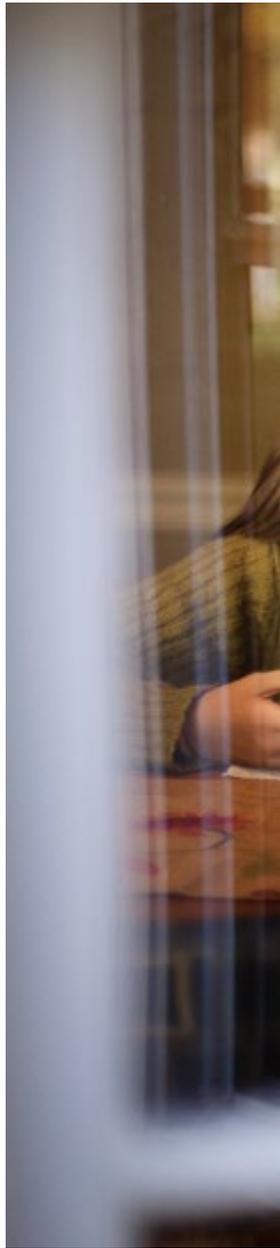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즉흥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믿고 그들의 느낌을 이해할 때에 자녀들은 포근한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일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sup>3</sup>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라.** 경전은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이다. 교리와 성약 121편 41~42절에 나오는 다음의 핵심 단어에 주목한다. 설득(강제가 아님), 오래 참음(즉각적이고 강요된 순종이나 조급함이 아님), 온화함(요란하고, 공격적이거나 격한 의사소통이 아님), 온유함(오만하거나 군림하려 드는 자세가 아님), 친절함(아비한 속임수가 아님), 거짓 없는 사랑(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 마음을 깊이 돌이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인내심, 친절, 부드러운 포용심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sup>4</sup>

**비판을 삼가라.** 후기 성도 부모들은 삶의 방식에서 구주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사랑과 동정심, 진심 어린 염려가 가득했다.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분은 회개를 요구할 뿐 정죄하지는 않으셨다.(요한복음 8:3~11

참조) 자녀를 비판하는 것을 삼간다. 비판하면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보다는 자녀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준다.

**분노를 자제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잠언 16:32), “다투는 정신[은] ……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제3니파이 11:29)

분노는 영을 몰아내고 깨지기 쉬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연차 대회에서 헝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는 여러분께 감정을 자제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감사와 존경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는 보존될 것이며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sup>5</sup>

**관계를 강화하라.** 이런 제안들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녀와 어려운 주제로 대화를 할 때 이 제안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렇게 자문해 보면 된다. ‘아이가 처한 이 상황을 나와야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지는 영감에 따른다.

**계속 노력하라.** 양육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계속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격려 말씀을 주셨다.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도 자녀가 여전히 엉겁고 가거나, 세상적이거나 말썽쟁이라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부모입니다.”<sup>6</sup>

글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산다.

**주**

1. 고든 비 헝클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4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러셀 엠 벨슨,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라”,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22쪽.
4. 마빈 제이 애쉬튼, “허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20쪽.
5. 고든 비 헝클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66쪽.
6.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96쪽.

**십 대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한 대화도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상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정체성을 힘겹게 형성해 가는 십 대들이라면 대화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사회적, 정서적인 면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 내야 한다. 게다가 친구들과 또래 아이들은 그들의 믿음과 가치 체계에 이따금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발달 단계에서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는 위기를 맞기 쉬우며, 십 대들은 흔히 혼란, 고독감, 걱정, 불확실, 무력감,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증까지도 겪는다.

부모가 이러한 발달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받아들인다면, 십 대 자녀가 부모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할아버지, 아버지

애런 엘 웨스트  
교회 출판서비스

**선** 교사 3,000명이 큰 방에 모여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그중 2,999명이 한 곳을 바라보며 신 나게 떠들고 있다. 일부는 까치발을 하고 서 있고 또 일부는 까치발을 하고 선 선교사들 너머를 보려고 깡충깡충 뛰다. 일부는 아예 접이식 의자 위에 올라 서 있다. 그런데 한 선교사만 움켜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다.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기억에는 딱 그랬다. 내가 느끼기에는 말이다. 그 한 명의 선교사는 바로 나였다.

여러분은 이 광경을 그려보면서 내가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또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기쁘게 떠올렸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고든 비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모든 선교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방문하셨다.

모임이 끝난 직후부터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선교사들이 문에 줄지어 서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장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힝클리 회장님의 손자가 이곳 선교사 훈련원에 있대요. 그래서 힝클리 회장님이 손자를 안아 주려고 방금 연단에서 내려오셨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설명한 그 장로는 시야를 더 잘 확보하려고 의자 위에 올라서더니 이렇게 소리쳤다. “와! 힝클리 회장님이 우리

할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힝클리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고, 그날 그분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의자 위로 올라서는 대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즐겁게 열광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힝클리 회장님이 우리 할아버지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를 그분과 바꾸지는 않겠어.’ 고개를 들고 우리 집안과 유산을 돌이켜보자 감사한 마음이 포근하게 나를 감쌌다.

그러다가 처음보다 더 강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게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는 치과 의사와 공장 책임자의 손자인 내가 선지자의 손자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마침내 다른 2,999명의 선교사는 그 큰 방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몇 분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된 채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 ■

# 모든 시련은 더 큰 신앙을 가져옵니다

조르지아 무르지아

일곱 살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나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다.

어릴 때 하루 중 제일 좋아했던 일과는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오시는 모습이 보이면, 집을 향해 오시는 발자국 수를 세면서 아버지가 가져오는 기쁨을 기대했다. 그런 기쁨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일곱 살이었던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심각한 얼굴로 아버지의 그 자리로 오더니 문 앞에 서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날 나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네 살배기 남동생과 어머니를 보았을 때, 동생은 아직 너무 어렸고 어머니는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창가로 가 거리를 응시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그 무게 때문에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 압력에 압도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혼자 내 방으로 들어가 저녁 어스름 속에서 그간 배웠던 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보고 안아 볼 수 있게라도 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기적을 내게 주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날, 나는 아버지를 보거나 안아 볼 수는 없었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내 어깨 위에 얹어진 구주의 손길을 느낀 것이다. 구주께서 내 곁으로 오셔서 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없애 주시는 것을 거의 실체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 안도감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가끔 슬퍼질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낀



## 구주께서는 치유하고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으로(앨마서 34:14 참조), 그분은 완벽하게 공감하시며 자비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가와서 어루만지고, 돕고, 치유하고, 강화하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

우리가 저마다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니파이후서 2:8 참조) 우리의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구주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리고, 약속드립니다.(모사이야서 24:15 참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0쪽)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 안도감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 번 영이 찾아와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길을 내게 보여 주었다.

적은 없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많이 영이 찾아와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구주의 소중한 발자취를 따라 길을 내게 보여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첫 시련으로 나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은 매일의 시련을 영원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우리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보살피 주시는 구주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영원한 결혼을 했으며 지금 우리 부부에게는 어린 세 딸이 있고, 그 아이들은 천상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 가져다준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삶의 모든 슬픔과 시련, 어려움은 더 큰 신앙과 새로운 증거,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지식과 안도감에서 기쁨을 느낀다. 남편과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때, 그들이 나처럼 보호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이 있기에 나는 정말 기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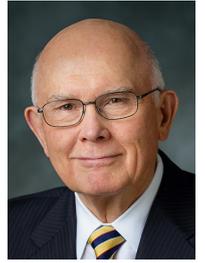
글쓴이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 산다.

### 시련을 통해 배움을 얻고

시련 속에서 힘과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련에서 배움을 얻기 위해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친절한 자비와 은혜를 “보는 눈과 듣는 귀”(신명기 29:4)를 간구할 수 있다.(이더서 6:12 참조)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배운 교훈과 증거를 몇 가지씩 일지에 적는 것을 고려해 본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하나님의 증인이 됨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증인을  
자처함으로써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분 계명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여러분의 의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

신앙개조 첫 세 개 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

물론경의 한 위대한 선지자는 이와 똑같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모사이야서 4:9~10)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며 행위에 관한 모든 규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행위를 지배하는 옳고 그름의 절대 원칙의 실존과 같은, 그런 기본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바탕을 두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이 규정하는 진리와, 옳고 그름의 영원한 실재성이 포함됩니다.

## II.

오늘날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된 풍조, 곧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인간사에 미치는 그분의 역할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미화하는 행위는 좋은 영향뿐 아니라 나쁜 영향도 끼쳤습니다. 과학은 우리 삶에 수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아예 하나님을 과학으로 대체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궁극적 기반으로서의 신의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똑똑한 철학자의 뜻이[또는 미 연방 대법원의 뜻이] …… 하나님의 뜻보다 도덕적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sup>1</sup>

자기 인생에서 신의 영향력을 대체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약화시키고 문명을 격하시켰습니다.

저는 지식을 얻는 데는 과학적 방법과 영적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안다는 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영적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여 경전과 영감받은 가르침, 개인적인 계시에 의존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얻은 지식은 서로 상충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후기에 관한 예언들은 영감받은 진리와 행위에 대해 큰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예언에는 적 그리스도와 크고 가증한 교회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 적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요한1서 2:22) 자를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부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서도 신의 존재를 공격적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코리호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적 그리스도”(앨마서 30:6, 12)라 지칭된 코리호어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신론적인 글을 연상시키는 말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앞을 내다보며 너희의 죄 사함을 본다 하나,

보라, 그것은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요, 너희 생각이 이 혼란은 너희를 인도하여,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일을 믿게 하는 바, 너희 조상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오느니라”(앨마서 30:15~16)

코리호어는 또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죄의 개념과 구주를 부인하는 그의 표현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는 생각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각 사람은 피조물의 정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역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앨마서 30:17; 강조체 추가)

## 도덕적 상대주의

오늘날 우리는 코리호어의 철학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두 연구자는 그 철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도덕적 문제에 관한 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정답은 없으며, 부적절하거나 적절한 판단도 있을 수 없고, 도덕적 구분을 짓기 위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방법도 없다.”<sup>2</sup>

이것이 대중 매체나 동료들의 압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넓은 규칙을 깨고 자유로워져라.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 들킨 사람에게 가해지는 인간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하나님, 절대자로  
만든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인간의 정신이  
모든 진, 선, 미의  
결정권자가 된다.”

법이나 대중의 못마땅해함 외에는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다.” 그러한 사상 뒤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 해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계명을 주지는 않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 세속적인 인본주의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옳고 그름을 부인하는 일은 고등 교육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본주의의 분파인 세속적 인본주의는 세속주의와 일치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며,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수많은 대학 교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납니다.

다양한 인본주의 철학 속에 내재된, 종교인들에게는 불쾌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계명에 뿌리를 둔 도덕적 절대 원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 인본주의 선언에서는 “전통적인

도덕적 법규”와 “계시, 하나님, 의식 또는 교리를 인간의 필요와 경험 위에 두는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통적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또 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 신의 의도를 찾을 수 없다. ……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인간이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sup>3</sup>

물론 인본주의자라 불리는 인본주의 지지자들은 긍정적인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민주주의, 인간의 권리, 교육, 물질적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발전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우리와 인본주의자들 사이의 쟁점이 되는 것은 신의 권위와 가치를 거부하는 그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전 브리검 영 대학교 철학 교수인 천시 리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하나님,



**니파이는 계시를 통해 단지 “두 개의 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회”(니파이전서 14:10; 또한 13:4~6 참조)가 있을 따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절대자로 만든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인간의 정신이 모든 진, 선, 미의 결정권자가 된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줍니다. 인본주의는 “오늘날 세상에서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 작가, 출판인, 학자, 언론인 대다수가 이런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sup>4</sup>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많은 사람은 아마도 도덕적 상대주의 철학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절대적 표준이란 설명하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표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적 도덕성”을 거부하고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시험”<sup>5</sup>에 의존하기를 주장하는 세속적인 인도주의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모사이야서 27:31)에 관한 물몬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크고 가증한 교회와 다른 “교회들”**

물몬경에 나오는 예언에는 “악마가 그 설립자인 온 땅의 크고 가증한 교회”(니파이전서 14:17)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더라”(니파이전서 14:11)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한 가장 가증한 교회”라 불리는 이 교회는 또한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행동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한다]”(니파이전서 13:5, 9)고 나옵니다.

기독교나 비기독교를 막론하고 지상의 모든 국가를 “다스리거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할 가능성이 있는 종파는 없으므로, 이 크고 가증한 교회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단일 “교회”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고 널리 퍼져 있는 무언가를 뜻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대하는 철학 또는 조직임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을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율매임이라기보다는 거짓된 사상에 속박되는 것을 말합니다.

니파이는 계시를 통해 단지 “두 개의 교회”,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회”(니파이전서 14:10; 또한 13:4~6 참조)가

있을 따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간의 대조를 암시합니다.(니파이전서 14:10 참조)

물론경의 다른 가르침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불신앙을 나타내는 데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니파이후서의 마지막 장들에는 후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멸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지혜와 그들 자신의 학식을 전파”하는 “많은 교회”(니파이후서 26:20)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장들에는 “교회를 세우되 주를 위하여 세우지 아니[하고]”(니파이후서 28:3) “그들의 학식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니파이후서 28:4, 5)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교훈을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없는 연고니”(니파이후서 28:5)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니파이인에게 성역을 베푸시면서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진]”(제3니파이 27:11; 또한 니파이전서 8:26~33; 11:35; 12:18에 나오는 “크고 넓은 건물”에 관한 가르침 참조) 교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권고는 종교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 상황에서 볼 때, 수많은 세속적 철학 및 활동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 III.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서 비롯된 옳고 그름을 믿는 많은 사람은 교육 기관과 대중 매체를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풍조 때문에 경멸과 조롱을 당합니다. 점점 숫자가 감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계명에서 비롯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언된 바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구주의 시대에 있었던 일의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고린도후서 4:8) 영적인 성장에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또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모사이야서 23:21)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주님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임을 가르칩니다.(사무엘상 17:37, 45~46; 시편 34:22; 잠언 3:5~6; 엘마서 36:27; 38:5 참조)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을 하기 쉬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되어야 한다는 물론경의 위대한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향력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니파이후서 25:29) 말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라”니”(니파이후서 25:26)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인사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지도자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따라 정립된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그분 자녀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적인 대화나 소통에서조차 종교적인 언급을 삼가는 현 추세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성탄절 인사와 위로의 글에서 종교적 상징과 경건한 단어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소통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개인적인 의사소통에서 신성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대화와 생활과 문화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향력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축복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언행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공적 담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축복에 대한, 종교적 신앙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공문서 및 정부

지도자들의 수사법을 미국의 초반 두 세기 동안의 비슷한 문서 및 지도자들의 말과 대조해 보면, 미국의 건국 및 보존에서 하나님과 종교의 영향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나라에 임한 주님의 축복을 인정함으로써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일을 “지혜와 질서 안에서”(모사이야서 4:27) 행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국가가 무신론자뿐 아니라 유대인, 회교도, 그리고 기타 기독교 신조가 아닌 것을 믿는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을 통해 축복받고 있음을 부인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며 자기가 믿는 신앙의 원리들을 국가의 헌법, 법률 및 문화에 구현시킨 사람과 지도자들이 건국한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sup>6</sup>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교수이자 전 지역 칠십인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형제는 최근 한 에세이에서 종교가 민주주의와 번영의 토대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모두 강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규모적인 순종에 의존하며, 이것은 “인간의 평등,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개인의 정직과 고결함의 중요성”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가르치는 종교에 의존하는 것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유신론적 종교를 밀어내고 싶어 하는 세속주의에는 크리스텐슨 형제가 말하는 “강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필수적인 토대”<sup>7</sup>를 제공할 어떠한 힘도,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해 싸우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해 싸우십시오. 이 일은 좀 더 어렵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단합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정부 관료들에게 그 약속을 존중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 중에 두 가지 예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신을 믿든, 그 신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하든 간에, 신성한 존재에게 말할 때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내용에 상관없이 공적 모임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집단이 공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 또는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입법 회의나 의회 모임을 시작할 때, 법정 증언 또는 공식 취임식 전에 집행하는 선서에서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지명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든, 그 사람의 종교적 신조 또는 기도에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든, 저는 우리가 현명하고 관대하게 집행되는 기도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예배의 자유”에만 제한한다고 시사하는 정부 관료들이나 공공 정책 옹호자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반대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이란, 교회, 회당, 회교 사원을 포함한 사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권리를 보호하되, 그것을 공중 보건과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인 공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활동이란 시민이나 입법자로서 공공 정책 토론과 투표에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종교적인 시민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전국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연설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관해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 힘을 보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sup>8</sup>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을 믿는 전통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 모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지지해야 합니다.

#### **IV.**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믿음이 있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엄숙한 종교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단합하며, 국가의 건립과 보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종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의 동료 기독교인 여러분에게 사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을 믿는 전통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 모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지지해야 합니다.

요한의 엄숙한 가르침을 상기시켜 드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한1서 4:3)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결과는 맛을 잃은 소금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이면, 이는 마치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로 희석되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혼합물로서의 그 고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구주께서 가르치셨듯이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마태복음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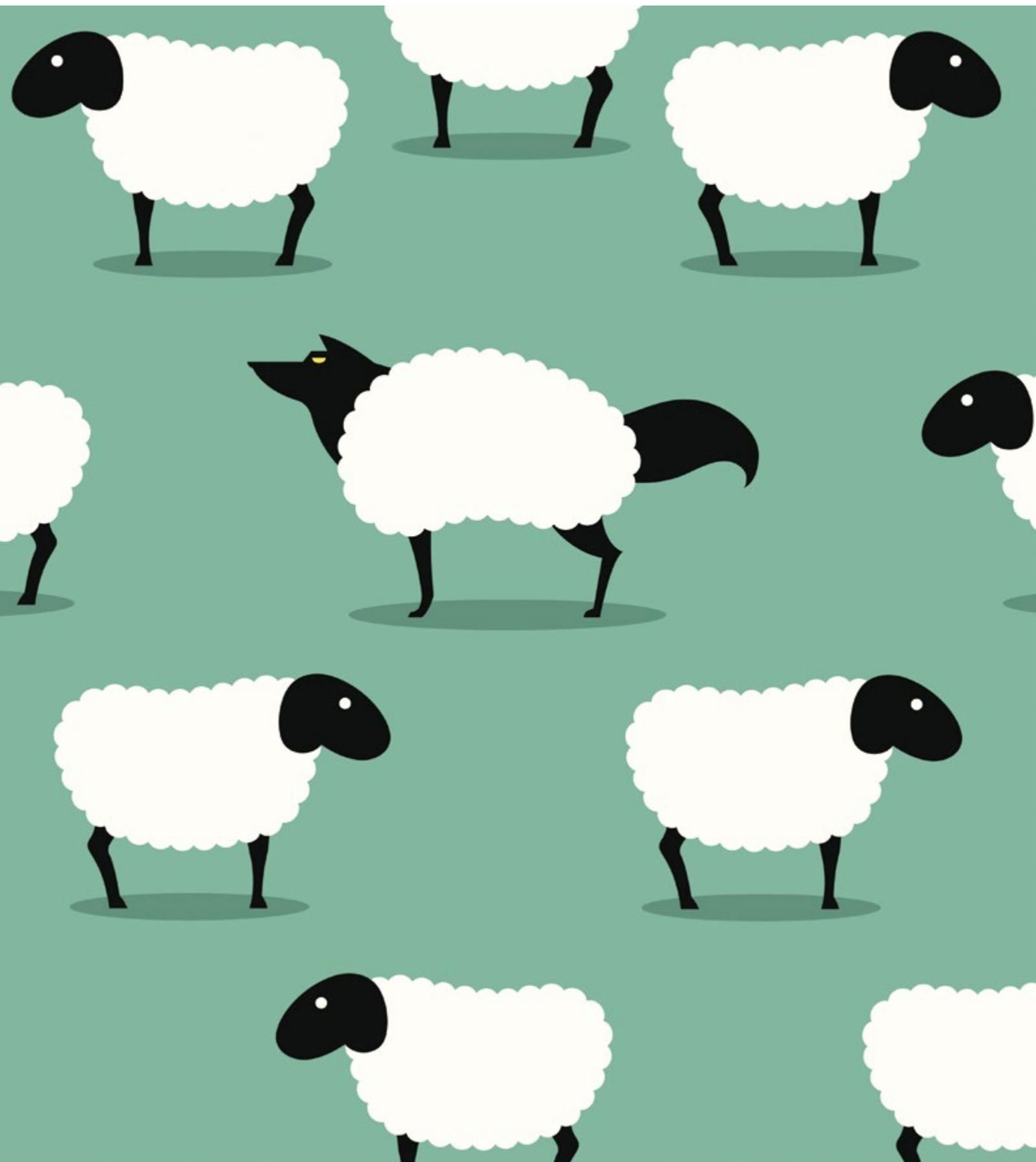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마태복음 5:13)으로서 우리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증인을 자처하여 소금으로서의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배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무릎이 ……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로마서 14:11)할 그날, 우리는 진리와 의의 궁극적 승리를 기뻐할 이들 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2014년 2월 25일 수요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하나님의 증인”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http://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Stephen L. Carter, *The Culture of Disbelief: How American Law and Politics Trivialize Religious Devotion* (1993), 226; 일반적으로 11장 참조.
2. Francis J. Beckwith 및 Gregory Koukl, *Relativism: Feet Firmly Planted in Mid-Air* (1998), 12-13.
3. Paul Kurtz, ed., *Humanist Manifestos I and II* (1973), 14, 15-16.
4. Chauncey Riddle, *Think Independently: How to Think in This World but Not Think with It* (2009), 120, 121.
5. Kurtz, *Humanist Manifestos I and II*, 16.
6. John A. Howard, *Christianity: Lifeblood of America's Free Society, 1620-1945* (2008), 51 참조.
7. Clayton Christensen, “Religion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Prosperity,” [mormonperspectives.com/2011/02/08/religion-is-the-foundation-of-democracy-and-prosperity](http://mormonperspectives.com/2011/02/08/religion-is-the-foundation-of-democracy-and-prosperity) 참조.
8. 제프리 알 홀런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26쪽.



# 사탄의 모반

전세 회의에서 사탄이 낸 제안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마크 에이 매튜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나**는 청년 시절에 교회의 일부 회원 사이에서 흥미로운 경향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동의한 규칙이 존재하고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적용된 상황에서 (예컨대 교회나 부모의 선도 조치, 또는 선교사 규칙이나 학교의 표준 복장 시행 등)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사탄의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들에게 의로워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반응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적잖이 놀랐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서 승인한 관행이 “사탄의 계획”에 속할 수가 있다니? 그 후 나는 사탄의 모반과 천국 전쟁에 관한 이와 같은 오해는 오늘날 사탄의 계획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경솔한 주장처럼, 실제로 꽤 보편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교리에 관한 이런 오해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오해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 참석을 권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의 합법화를 지지하도록 교회 회원들을 이끌 수도 있다. 또 이런 오해로 교회의 일부 회원은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과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알맞게도 성약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계획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전세에서 사탄이 제안한 것에 관한 일부 견해는 이 주제에 관한 실제 계시보다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직접 경전으로 돌아가 주님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제로 계시하신 내용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경전에서 사탄이 제안한 것에 관한 주요 근거는 모세서 4장의 첫 다섯

구절에 나온다.

“그리고 나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1~4)

## 모든 거짓의 아버지

이런 성구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지원자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대체하는 다른 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계획이었으며, 그분은 이 계획을 천국 회의에 모인 영의 자녀들에게 제시하셨다. 이 계획에서 구주가 되기로 “태초부터 택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즉 계획)이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버지”(모세서 4:4)로 불린다. 그는 우리가 그를 따른다면 모든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탄이 제안한 것은 거짓이었으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할 것을 겸손히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모든 이에게 보편적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방자하고도 달갑지 않은 제안을 한 것이다.(모세서 4:1 참조) 사탄이 어떻게 이를 성취하겠다고 주장했는지 논의하기 전에, 그는 이 구절에서 “모든 거짓의 아버지”(모세서 4:4)로 지칭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경우에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교리와 성약 93:25)로 불렸다. 사탄이 보편적 구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 동안,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사탄의 기질과 내력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납품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상품을 우리에게 팔려고 애쓰는, 최초의 사기꾼으로 그를 간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드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는 그 계획이 아니라, 자기를 따른다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탄의 제안은 거짓이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세우신 완전한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사람들을 속여 사탄을 따르도록 쳐 놓은 하나의 올가미에 불과했다. 그것은 결국 구원의 계획이 아닌, 저주의 계획이었다.

### 선택의지를 멸함

중요한 점은 사탄이 이 거짓말을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제안했는지는 이 성구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전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모세서 4:3) 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 회장은 사탄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이 두 가지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제가 경전을 이해하는 바로는 사탄의 계획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즉 사람을 …… 강압하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인간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49, 193; *Doctrines of the Gospel Student Manual* [2010], 15쪽에서 인용)

이런 가능성이 실현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사탄의

노력과 전략에 담긴 각 요소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독재자들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죄가 되는 행위를 사회가 받아들이게 하려 하는 정치 활동가들은 강압과 힘이라는 방법을 동원한다. 주님은 특히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교리와 성약 121:37) 하는 행위를 비난하셨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다정한 설득과 올바른 꾸지람으로 의를 고취하는 데 힘과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교리와 성약 121:41~43 참조) 이 중요한 해명에는 교회와 부모가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하고, 선교부와 교회 학교가 규칙과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사회가 올바른 법을 제정하는 일은 모두 주님이 승인하신 관행이지 “사탄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선택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질서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제안했는지에 관련된 두 번째 가능성은 영문판 후기 성도 성경 사전(LDS Bible Dictionary)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지, 또는 자발적인 헌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원이 자동으로 오기를 원했다.”(“천국 전쟁”) 달리 말해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이다. 그렇게 하면 선택의지를 쓸모 없게 만들어 결국 선택의지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가 모두 배제되고 누구나 같은 상을 받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없어지고 선택의지는 파괴된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제안했는지에 관한 이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아는 그의 노력과 전술에도 나타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삶을 영위하고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간악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부추긴다. 손쉬운 구원과 죄가 되는 생활방식에 관한 이런 유혹적인 메시지는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던]”(아브라함서 3:28) 천국 전쟁에서의 사탄의 제안처럼 오늘날에도 매우 인기가 많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 사탄의 방식이 전세 이후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든지 행복해질 것이라든지 또는 무엇이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계속 한다. 그는 또한 타인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행위를 강요하려고 강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리하여 “전쟁은 지상에서도 계속된다……. 동일한 주제로 싸우고, 동일한 구원이 위협에 처해 있다.”(Bible Dictionary, “War in Heaven”)

### 모반 계획

사탄이 무엇을 제안했는지에 관한 공허한 이론보다는 사탄의 계획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도록 이끌었는지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사탄의 계획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반이다. 경전은 사탄이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모반했다고 되풀이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사탄이 나를 거슬러 모반하였고”(모세서 4:3),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 한 천사가 …… 독생자를 거슬러 모반하였으며”(교리와 성약 76:25), “그가 나를 거역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였음이니”(교리와 성약 29:36)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성구에 비추어 보면,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악의 없는 제안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모반이자 반항이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천국을 차지하려는 의도된 반란이었다. 사탄을 따르던 자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기를 거부했기에 그들의 선택의지는 파괴되었다. 그 대신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하였으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었다.”(니파이후서 2:27) 그 결과, “천군의 삼분의 일[이] 그들의 선택의지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떠났다.”(교리와 성약 29:36)

달리 말하자면, 사탄의 계획을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모반과 불순종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런 말로 요약하셨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이에 덧붙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제3조)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과 의로움의 계획인 반면, 사탄의 계획은 불순종과 모반의 계획이다.

### 계획을 인식함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목표 사이의 차이를 알면 누가 진정으로 사탄을 따르고, 또 누가 따르지 않는지를 더 뚜렷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의로움을 고취하고 순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따르다며 비난하는 행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사탄의 진정한 추종자들을 드러내 줄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반대하고 모반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의로움의 표준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받아들일도록 강요하는 자, 사람들을 속여 간악함이 행복이라고 믿게 하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반역적인 전략의 여러 요소를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리고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신앙개조 제3조)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계획, 곧 구원의 계획을 따르기를 기원한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본 기사나 리아호나의 다른 기사에 의견을 주실 분은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 쇠막대를 붙잡으십시오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의 계명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우리는 옳은 일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훌륭한 회원은 대학시절, 친구의 집에서 열리는 토요일 밤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대학 교수님들도 초대되었는데, 그분들은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파티는 유쾌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약물을 하고, 집 안 곳곳에서 형편없는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걱정이 되어 떠나기로 마음 먹었지만, 파티가 열린 곳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친구들 차를 얻어 타고 왔기 때문에 혼자서 떠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간 숙고한 후에 그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파티가 끝날 때까지 밖에 머물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친구들은 파티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교회에서 성찬을 취할 때, 그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으며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도 쇠막대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니파이가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니파이전서 15:24)

그 청년이 당황한 나머지 쇠막대를 붙잡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 인생에서 그때를 비롯한 다른 여러 결정의 결과, 젊은 여성과 성전에서 결혼하여 의로운 가정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훌륭한 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육에 속한 사람

일상적인 유혹을 이겨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빠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기술은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반하는, 파괴적이고 삶을 어지럽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공유하더라도 신앙이 약한 친구들은 저속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런 일 외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다스려야 합니다.

경전 안내서에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열정, 욕망, 욕구, 그리고 육의 감각에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 육에 속한 사람이기를 그치기 위해서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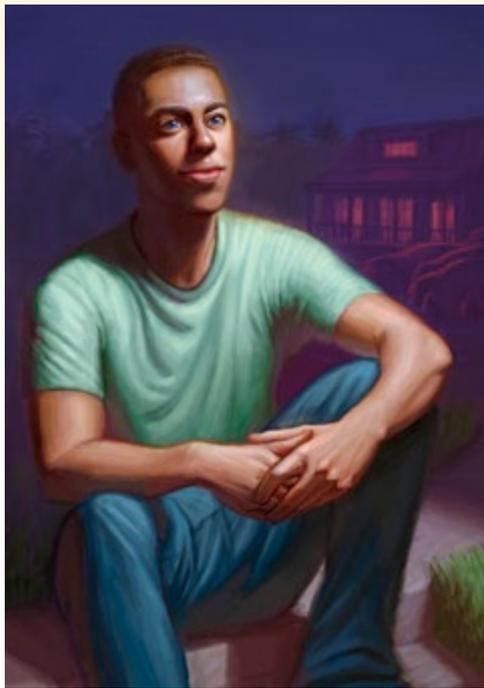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집중력을 흐트리는 유혹을 피하고 옳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짧은 격언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의로워질 수 없으며 의를 행하면 잘못될 수도 없다.”<sup>2</sup>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의 계명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우리는 옳은 일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빛

선지자 몰몬은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제** 친구는 그 파티를 떠나서 끝날 때까지 밖에 머물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도 쇠막대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도 그러함이라.”(모로나이서 7:16~1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모든 것에 생명과 빛을 주는 하늘의 에너지, 힘, 또는 영향력”<sup>3</sup>인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옳고 그름 중에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이 은사는 성신의 동반과 더불어 우리의 선택이 주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아니면 대적의 편으로 인도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하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악하면 대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대학 친구는 이 두 가지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빛은 그 친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도록 도움을 주고 성신은 어느 길을 따라야 할지 결정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두 은사는 쇠막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 회개의 은사

어떤 이유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현혹되어 죄를 범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을 빌리자면, 회개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섭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대부분 책망하는 음성이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 가득한 호소입니다.[히라맨서 7:17 참조] 이러한 권유는 사랑의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고, 더욱 고결한 삶을 살고, 변화하고, 계명을 지킬 때 얻는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회개의 축복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형성합니다.”<sup>4</sup>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자기 삶의 틀을 하나님께서 잡아 주시게끔 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에 신성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씨앗은 자라야 합니다.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해 인생길에서 내리는 결정을 인도받을 때, 이 씨앗은 자라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영과 인생을 형성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인내를 알아보시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완전함과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려 애쓰는 것을 보고 우리의 틀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회개는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는 일, 즉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새로워지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매일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되풀이해 분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로 뒤덮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가까이 가서 높은 능선에서 뒤를 돌아볼 때까지, 우리는 자신이 전진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려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회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중독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오늘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 날에도 또 그다음 날에도, 아마도 여러 날, 심지어 몇 달 혹은 수년까지라도 노력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sup>5</sup>

우리는 발전하면서 인생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성신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누우치지만 위안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위안이 깃들 것임을 약속합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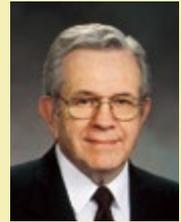
우리 모두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판단하며,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부족할 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변화시켜 주시게 합시다. ■

2013년 11월 5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 “Becoming a Work of Art”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경전 안내서, “육에 속한 사람”, scriptures.lds.org.
2. 토마스 에스 몬슨, “안전하지 못함”,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48쪽.
3. 경전 안내서, “빛, 그리스도의 빛”, scriptures.lds.org.
4. 닐 엘 앤더슨, “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쪽.
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월호, 29쪽.



모두에게 주는 약속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그분의 자비로운 팔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주께서 치르신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우리 희망의 근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6, 7쪽



# 여성을

## 존중하신 구주

로버트 런던, 마리 런던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대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을 동등하고 존중하셨다는 점을 밝혀 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가 언급했듯이, “세계 최대의 여성 옹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sup>1</sup> 밝히고 있다.

본 기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음 여성들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1)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요한복음 2:1~11; 19:25~27 참조) (2)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4~30, 39~42 참조) (3) 간음한 여인(요한복음 8:1~11 참조) (4) 막달라 마리아(요한복음 20:1~18 참조) 이 여성들은 인생 역정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요한은 그들의 각기 다른 생활 여건에 대한 구주의 이해심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각 여성이 받은 축복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성들과 그리스도의 교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분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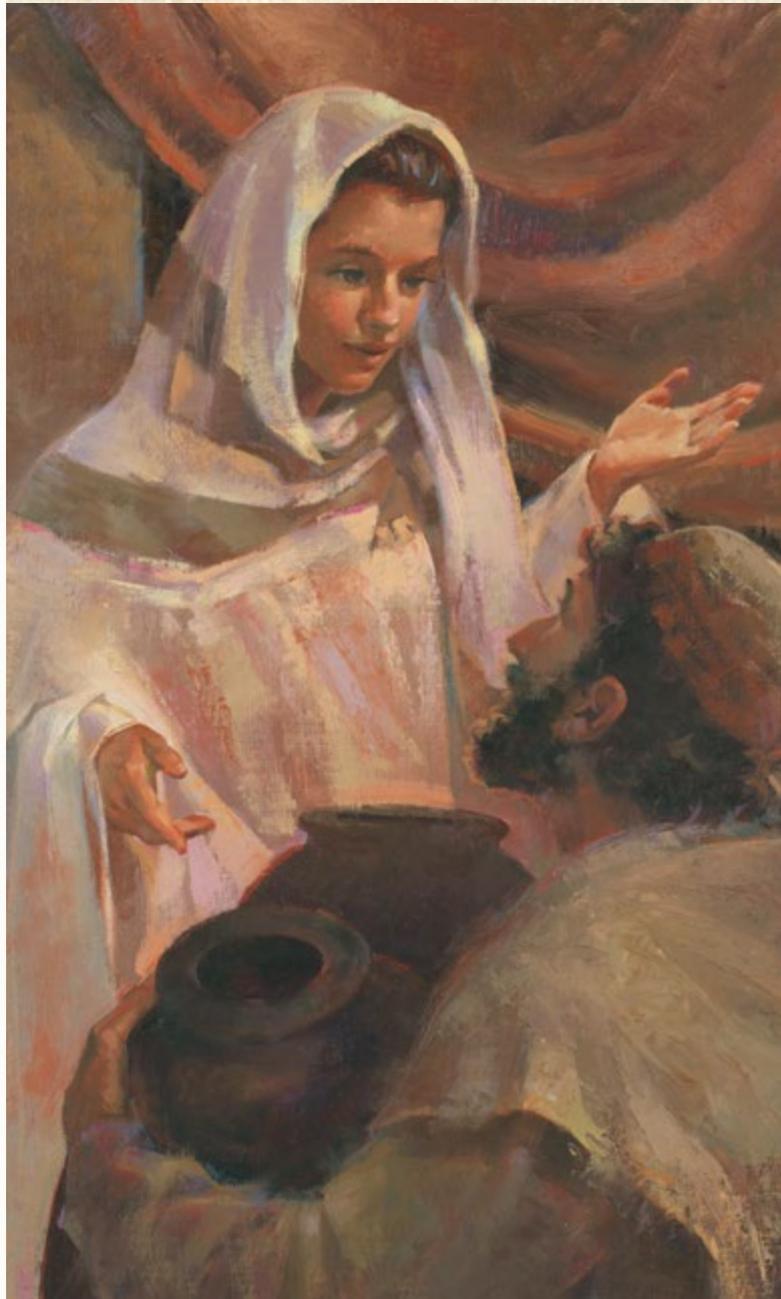
### 마리아의 신앙이 낳은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

요한은 마리아를 복음서 앞 부분에 등장시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결혼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에 대한 그의 기사에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찬사가 포함되어 있다.

마리아는 결혼식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sup>2</sup> 손님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요한복음 2:3) 말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어떤 기적을 공손하게 기대했을 것임을 암시한다.<sup>3</sup>

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요한복음 2:4). 이 구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번역에서는 구주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를 마리아가 원하는지 묻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sup>4</sup> 여자라는 호칭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거칠고 예의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구주께서 여기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반대 의미를 전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sup>5</sup>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여자 또는 달리 말해 ‘부인’은 그리스어에서 존경의 칭호이며 여왕을 호칭할 때에도 사용되었다.”<sup>6</sup> 주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부인, 당신께서 믿음으로 제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허락하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구주께서 여성들이 당면했던 일상적인 어려움에 관심 있어 하셨음을 알려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던 어머니를 돕겠다고 제의함으로써 어머니를 존중하셨다.

그런 다음, 기사에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한복음 2:5)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지시할 때 드러난 그녀의 연속되는 신앙이 기록되어 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고 구주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부응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결혼식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도우셨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신뢰하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후기 성도 여성들 역시 감당하고 있는 책임 때문에 벅찰 때에는 마리아처럼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신뢰하라는 교훈이다.



자신의 신앙 덕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요, 약속된 메시아임을 간증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이 짧은 기사는 마리아의 신앙이 야기한 힘에 대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을 확인해 준다. 다음에 요한이 독자에게 소개한 여성은 사마리아의 여인이다.

###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존중심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의 기사는 예수님이 국적이나 종교적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여성을 존중하셨음을 입증한다. 일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다른 어떠한 나라의 국적 소유자인 이방인보다도 가장 불결한 사람”<sup>7</sup>으로 여기고 교류를 회피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전통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명예까지 더해 주셨는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것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sup>8</sup>

한낮의 열기 속에서 여행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휴식을 취하고 물을 얻기 위해 쉬어 가기로 하셨다. 구주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의 문을 여셨다. 대화하면서 점차 그 여인은 구주의 신성에 대한 간증이 생겼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호칭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점차 “주”, “선지자”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칭했음을 기록했다.(요한복음 4:9~29 참조) 점차 더 존경스러운 호칭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녀의 신앙이 커지고 개종했다는 증거가 된다.

구주께서는 자신에게 “생수”(요한복음 4:10)가 있으며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여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더 많은 것을 여쭙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생활과 현재의 죄스러운 관계를 꿰뚫어 보며 말씀하셨다.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겠으나, 한편으로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요한복음 4:19)라고 진지한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그녀는 아마도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중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죄가 더 숨길 것도 없이 다 드러난 그 여인은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했다. 주님이 주신 대답 중 다음 말씀은 구원을 얻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여자여 [또는 부인] 내 말을 믿으라”(요한복음 4:21).

자신의 신앙 덕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요 약속된 메시아임을 간증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적인 소유물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가 외쳤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한복음 4:29).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이런 일화를 부각시키면서 요한은 구주께서 여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 생활의 세세한 면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구주께서는 모든 여성을 그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하셨다. 자기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느끼거나 자기가 있던 사회에서 내쫓긴 것 같이 느끼는 여성들에게 이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여성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자기를 받아 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가르쳐 이런 점을 강조한다.

### 간음한 여인에게 동정심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은 그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인정사정 없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부드러운 존중심과 동정심을 대조적으로 보여 준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시고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셨는지, 구주께서는 “뭇 들은 체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요한복음 8:6) “땅에 쓰신 [행동은] 현재 벌어진 일을 다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고대에 익히 알려진 상징적 행동이었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가시게 굴고 그 여인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여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예수께서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요한복음 8:7-8) 자신들의 추한 본모습이 탄로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비난자들은 부끄러워하며 하나씩 자리를 떴고 간음한 여인만이 남아 예수님과 마주했다.

여인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은 것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다. 그녀는 예수께서 자기를 존중하며 대하신 태도로 기운이 돋고 힘이 생김을 느꼈을 것이다. 예수께서 물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여인이 도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은 것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자기를 존중하며 대하신 태도로 기운이 돋고 힘이 생김을 느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구주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어 그분에 대해 간증하는 사명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여성을  
필요로 하신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한복음 8:10~11).<sup>10</sup>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성들을 그 죄에 관계없이 동정심과 존중심을 갖고 대하셨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했던 이 여인의 예에서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 있던 이 여인에게 공감을 보여 주신 구주께서는 동산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발견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위로해 주셨다.

###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선택된 막달라 마리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본 사람을 확인해 준 유일한 복음서 저자이며, 용감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큰 영적 시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한복음 20:1)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사도들에게 급히 알렸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이 달려갔을 때에는 무덤에 수의만 남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 두 사도는 자리를 떴고 마리아만 무덤 밖에 홀로 남았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주님의 시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걱정하며 안절부절못했을 것이다. 구주께서 나타나 말을 건네셨지만, 처음에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요한복음 20:16)라고 하셨다. 그녀는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런 인식은 순간적으로 온다. 눈물의 강이 기쁨의 바다가 되었다. 바로 주님이였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이다.”<sup>11</sup>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에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 사도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지만(누가복음 24:11 참조) 마리아의 간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 마리아의 간증을 깊이 생각하며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한복음 20:19)라고 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구주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어 그분에 대해 간증하는 사명을 받은 이 일화는 그리스도께서

여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한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여성을 필요로 하신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경륜의 시대에도 여성 영웅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지와 다양한 계층에 속한 무수한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대업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신권을 소유한 남성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부름에 응하시겠습니까?’”<sup>12</sup>

###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여성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 생활에 따르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우리 짐을 덜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범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돋아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 고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 주에 산다.

###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78쪽.
2.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135 참조.
3.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50쪽 참조.
4. 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2:4 (in John 2:4, footnote a) 참조.
5.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49~150쪽 참조.
6. In J. R. Dummelow, ed.,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1909), 778.
7.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77쪽.
8.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쪽.
9. Dummelow, ed., *Commentary*, 788-89.
10.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믿었다고 추가했다.(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8:11 참조)
11. Bruce R. McConkie, *The Mortal Messiah*, 4 vols. (1979-81), 4:263.
12. 엠 러셀 벨라드,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8~39쪽.



#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성장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며,  
주님의 방법으로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 애덤 코터

**주** 로 인터넷 때문에 교회 회원들이 자신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들을 접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어떤 회원들은 제기된 질문들에 당황하고, 또  
자기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한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신앙으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진지한 질문과 의심은 다른 것이다.

### 질문 대 의심

그렇다면 질문과 의심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해와 신앙을  
키우겠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장려될 만한  
것이다. 고대와 현대의 많은 계시는 진지한 질문에 따른  
결과물이다.<sup>1</sup> 경전에서, 알기 위해 찾고 구해야 한다는 말은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진지한 질문이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진정한  
의도”(모로나아서 10:4)로 묻는 질문을 뜻한다.

진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대답을 찾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순종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면 답을 기다리는 동안 계명과 성약에 대한 자기  
결심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자주 봐 왔다.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미온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순종하고, 의심의  
해결을 미룬다.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의심을 부추기는 제언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경전에는 그와 반대되는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는 권고를 받는다. 또 몰몬서 9장  
27절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권고도 있다.

의심에 수반되는 한 가지 문제는 만족할 정도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만 순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코리호어가 보여 준 태도이기도 한데, 그는 “내게 표적을 보여  
준다면, …… 그리하면 네 말의 참됨을 내가 인정하리라”(앨마서  
30:43)고 말했다.

신앙과 소망, 나아가 가족까지 파멸시키는 힘을 지닌  
의심은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겠다고 내가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질문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순간에 사그라진다. “나는  
…… 때문에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충실한 말과 “나는 ……  
한다면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의심 가득한 말 사이의 차이에는  
강력하고도 영원한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 해답을 얻는 주님의 모형

네트워크 기술자인 나는 내 컴퓨터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고 싶으면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런 규칙이  
지루하게 보일 때도 가끔씩 있지만, 각 네트워크 기술자가

똑같은 표준을 따를 때 우리는 각기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지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 그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는 최소 진리를 이해하려는 의욕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엘마서 32:27 참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참된 답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답 속으로 빠져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직면할 때, 특히 그것이 그간 지켜 온 믿음에 배치될 때,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맺은 성약에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려면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의 걱정거리가 확실히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온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만 하고 싶어 하는가?”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런 모형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따라서 질문을 해결하는 첫째 단계는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엘마서 1:25)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당부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확고부동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해 준 바로 그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상고하고, 회개하며,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토네이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만



**신앙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토네이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만 안전한 지하 대피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지하 대피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sup>2</sup>

앤더슨 장로는 또 “신앙은 ……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sup>3</sup> 주님은 우리의 지성과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은 우리의 지적인 정직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지를 존중한다는 영원하고도 신성한 증거이다.

### 질문은 이해력을 키워 준다

교회 역사 또는 교리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올바르게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질문은 인생의 한 부분이며 우리가 발전하고 이해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핵심은, 우리를 답으로 인도해 주는 계시의 과정에서, 질문을 계속 키워 나가느냐가 아니라 계속 계명을 지키는가에 있다.

사탄이 우리의 의심을 배가하거나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신은 불편한 느낌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며, 아니면 그 속삭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의심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하고 정직하게 자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독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의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회개를

성공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교회 지도자의 말씀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자신의 저서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초판에서 이렇게 적었다. “사람이 우주 공간을 여행해 달이나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가는 어떤 장비나 우주선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sup>4</sup>

훗날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서거한 뒤,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 회장이 되었다.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가 그 말에 대해 질문했다. 스미스 회장은 “글쎄요, 제가 틀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sup>5</sup>라고 답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지적했다. “우리는 …… 어떤 과거사에 매달려 참으로 고귀한 정서적, 영적 힘을 소진해 버립니다. …… 단순히 필멸의 인간이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허덕이는 불안정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교회 역사 속 사건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sup>6</sup>

###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찾음

회복의 역사를 탐구하는 많은 책이 저술되었고 또 수많은 시간이 투자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해력을 넓혀 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질문들을 촉발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 또한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지금은 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데 빠지기가 쉽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진실되고 의미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가 확고하게 성약을 지키고 우리가 지닌 빛에 참되게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생활을 축복하시고 영감을 주실 것이며 이런 확신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친절한 자비를 느낀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매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었다. 그것은 빛이요 지식이었다. 제삼자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했다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의 힘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경전 공부와 기타 복음 공부를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질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질문을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대답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약에 충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러한 길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질문에 대답을 주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미국 조지아 주에 산다.

복음에 관련된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lds.org/topics](http://lds.org/topics)에서 볼 수 있다.

### 주

1. 예를 들어 창세기 25:21~23; 출애굽기 3:11~22; 모사야야서 26장; 앨마서 40장; 제3니파이 27장; 교리와 성약 76: 77; 138편 참조.
2. 닐 엘 앤더슨,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0쪽.
3. 닐 엘 앤더슨,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4쪽.
4. 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1958), 5 vols., 2:191.
5. 데이비드 판즈워스의 개인 회고; 기자회견은 달 착륙이 있고 6개월 후인 1970년 1월 23일에 있었다.
6.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2쪽.



### 교리적 확실성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인간이 지닌 몇몇 불완전성을 용납할 수 있으며, 그런 결점은 필멸의 존재로서 예상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경에 반대되는 몇몇 근거 없는 과학적인 발견을 용납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를 용납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진리 전체를 놓고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교리적 진리와 의식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제 가족을 축복할 하나님의 신권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 지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답을 하지 못한 몇 가지 질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무수한 교리적 확실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드 알 콜리스터, 본부 주일학교 회장, “그리스도 교회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4년 1월 12일); [cesdevotionals.lds.org](http://cesdevotionals.lds.org)

## 너는 기도해야 하느니라

**20** 10년 1월 12일, 아이티를 폐허로 만든 끔찍한 지진의 여파로 내 주위의 4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내가 무거운 건물 잔해 밑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평화로운 음성이 들렸다. “지미, 소리지르는 대신에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비명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열망이 느껴지는 선한 친구의 목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했다. “지미, 너는 기도해야 하느니라.”

다리의 고통은 참기 힘들어졌고

어둠에 둘러싸인 채 산소도 희박해져 가고 있었다. 그 음성이 한 번 더 들려왔다. “지미, 너는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 순간 나는 반발을 멈추었다. 나는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제가 힘이 없다는 것과, 이 고통을 얼마 동안 참을 수 있는지 아십니다. 부디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단순한 기도를 입 밖에 내자마자 나는 잠이 들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고통은 사라지고 없었다. 잠시 후, 내 사무실 건물의 폐허

속에서 희생자를 찾던 구조대원들이 나를 발견했다.

후에 나는 내가 일하던 포르토프랭스 2층에 있던 5명의 직원 중 잔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부상으로 다리 한쪽을 잃었고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성신이 내게 기도하라고 속삭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또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

지미 세인트 루이스, 아이티



# 내가 얻은 배움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18** 살인 내 아들 잭슨을 잃고서 나는 내 삶의 질과 방향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았다. 나에게서는 영원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다. 또한 경전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경전을 더 잘 알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들을 다시 보겠다는 소망으로 나는 불붙어 있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나는 한 개인이 처한 삶의 상태나 한 백성이 나아가는 방향 및 상태를 나타내는 데 마음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음이 강박하다거나 부드럽다고 언급될 때마다 나는 여백에 빨간색 하트를 작게 그렸다. 그러면서 일정한 양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역경을 헤쳐 나가는 힘을 얻었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증가했으며, 더 친절하고 더 온화해졌다. 또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간구하는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읽었다.

내가 얻은 배움은 나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켰다. 또한 부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내 직업에도 도움이 되었다. 결혼 생활에 만족과 진정한 친밀감을 가져오는 공통된 원리들을

부부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켜 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 일어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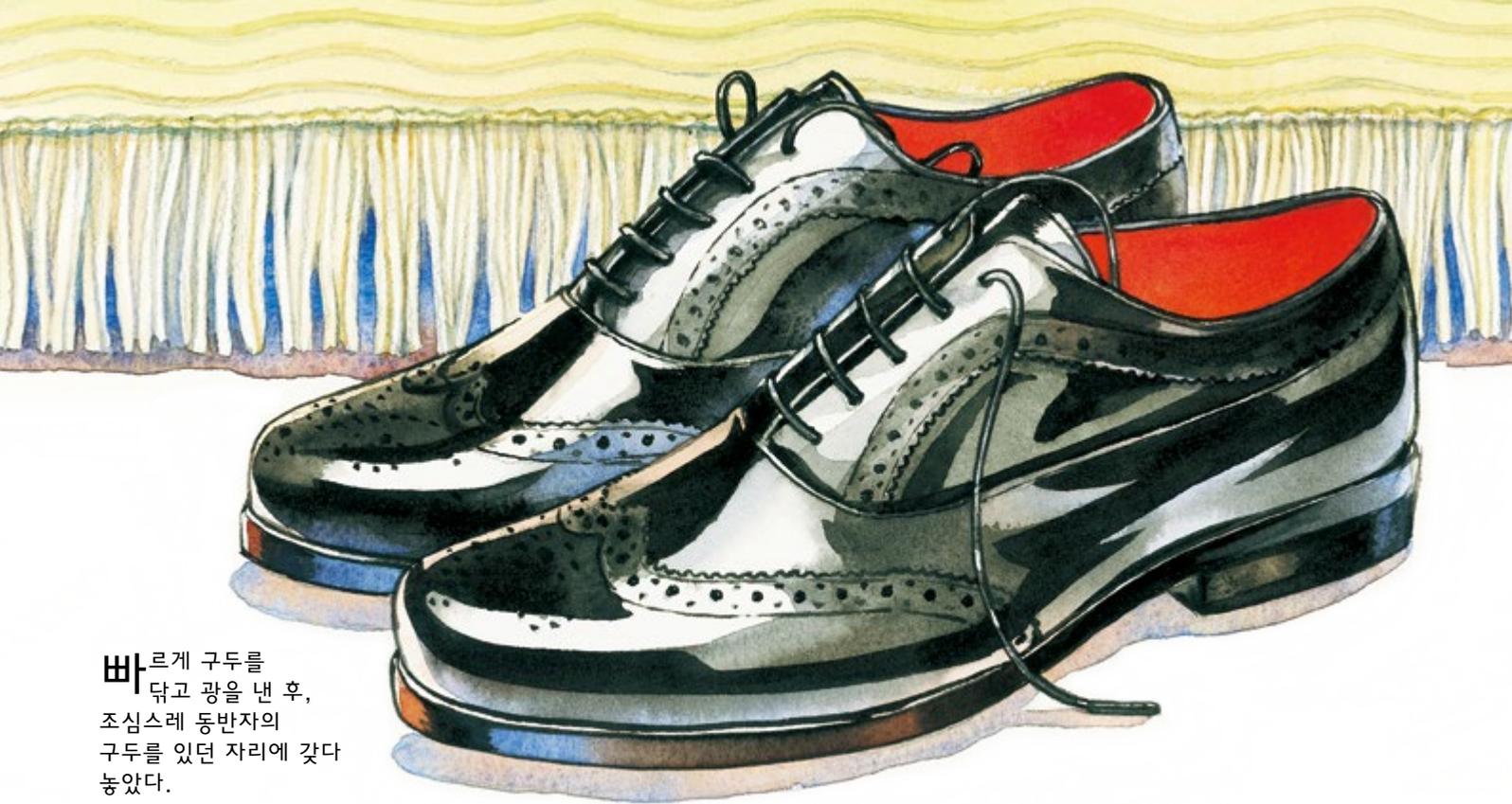
몰몬경 공백에 하트를 그린 이후로 나는 종종 그 구절들을 펴서 다시 읽으며 계속해서 배움을 얻고 있다. 첫 번째에 놓쳤던 하트 구절들을 새로 찾기도 한다. 그러면서, 경전에는 읽을 때마다 배우고, 익히고, 적용할 새로운 무언가가 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내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 사랑 덕분에 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으며, 이에 깊이 감사한다. ■

달시 로건, 미국 알래스카



**다**리의 고통은 참기 힘들어졌고 어둠에 둘러싸인 채 산소도 희박해져 가고 있었다. 내가 얻은 배움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빠**르게 구두를  
 닦고 광을 낸 후,  
 조심스레 동반자의  
 구두를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다.

## 내 동반자의 해의 왕국의 구두

**여**러 해 전,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을 떠나 선교 임지에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며 들뜬 마음으로 플로리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새로 만난 동반자와 나는 같은 관심사가 많았고,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완전한 조합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주 후,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나는 날마다 전도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동반자는 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일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는 선임 동반자였지만, 전도를 많이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또, 동반자가 자기 자신에 관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동반자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윤택했고, 그는 그보다 덜한 환경에서 온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두루 경험했었다.

이런 점들은 내 안에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동반자에 대해 분한 감정을 계속 품다 보니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내가 복음을 가르치려 할 때 그러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동반자에게 말을 걸어 단순히 내 모든 불만을 토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아침마다 동반자와 나는 돌아가며 샤워를 한 후 그날을 준비했는데, 나는 동반자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그의 침대 끝으로 가서 구두를 닦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빠르게 구두를 닦고 광을 낸 후, 조심스레 동반자의 구두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나는 약 두 주에 걸쳐 매일 이렇게 했다.

그러자 이런 시간에는 분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알았고 동반자를 위해 봉사하면서 내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반자에게는 내 작은 봉사

행위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반자는 구두가 더러워지지 않는 듯싶자, 자신이 “해의 왕국의 구두”를 축복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경험에서 두 가지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 첫째, 내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비록 외부에서 비롯되기는 했으나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동반자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둘째, 나는 대개 우리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원리가 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점은 알지 못했었다. ■

마이클 리드, 미국 애리조나 주

# 나는 선지자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학** 교에 다니려고 모국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온 지 약 석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밤, 나는 라디오 방송의 채널을 조금씩 들어 보면서 일요일에 맞는 좋은 음악을 찾고 있었다. 몇 군데 지역 방송을 청취하던 중, 나는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서 채널 돌리기를 멈추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분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나는 스페인어 통역자의 음성을 통해 연사의 말씀을 중계하는 연차 대회와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기타 다른 교회 방송들을 청취하는 데 익숙했다. 어쨌든 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성이 힝클리 회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만큼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분의 목소리는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말씀이 끝나자 라디오 아나운서는 “방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 메시지는 그분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그분의 선지자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힝클리 회장의 음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니 나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교통하는

음성을 알아볼 수 있기를 항상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구주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0:27)

잠시 듣다가 지나치는 여러 가지 소리, 곧 여러 “방송” 채널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의 목자와 그 종들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 권고를 기꺼이 따르도록 항상 내 다이어리가 맞춰져 있기를 바란다. ■

미리엄 루이즈, 미국 유타

**몇** 군데 지역 방송을 청취하던 중 나는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채널 돌리기를 멈추었다.



# 우리가

# 부모님 배운 것

# 에게서

청년 성인들이 부모에게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 부지런히 일하는 것

나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웠다. 우리 가족은 “성실 목록”이라 부르는 방법을 사용했다. 매월 초에 우리는 설거지, 말 돌보기와 같은 여러 허드렛일 목록을 받았다. 그 일들을 마치면 했다는 표시를 한 다음, 월말에는 했다는 표시가 도표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토대로 열심히 한 일에 대해 용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알뜰히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피터 스티지비, 스웨덴 베스테르보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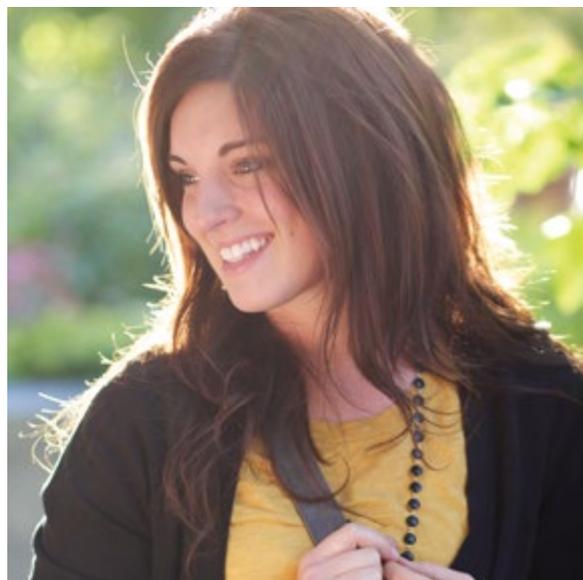


## 의로운 부모의 본분

엄마는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늘 시간을 내 나를 도와주거나 위로하고,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엄마가 늘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에, 앞으로 나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엄마는 재혼하셨고, 엄마의 남편분은 오빠와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하셨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가정에 여동생이 왔지만, 새아빠가 우리를 친자식처럼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셨기에 편애한다는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새아빠의 그런 태도 덕분에 오빠와 나는 가정에 신뢰가 있는 강하고 단합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인봉된 날은 매우 특별했다. 나는 새아빠의 다정한 모범을 통해 아버지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무엇임을 알게 되었다.

어맨다 코닐리어스, 스웨덴 스톡홀름



## 하나님의 보호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다 늘 캄캄해진 후에야 귀가하셨다. 나는 아빠가 집에 오실 때까지 자주 깨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몹시 늦으셨고 전화 통화도 안 되었다. 나는 무척 두려웠다. 늘 기도하고, 두려울 때마다 도움을 구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빠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시기를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놀랍게도 밖에서 아빠의 자전거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를 보살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청년 성인이 되어서도 혼란스럽거나 두려울 때마다 맨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다. 나는 그분이 늘 곁에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

로하니 크리스난, 인도 벵갈로르

## 기도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부모님 침실로 갔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가 보았는데, 그때도 아빠는 똑같이 그 자세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잠잘 준비를 마칠 때쯤이면 아빠가 기도를 마치실 거라 생각하고 잠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약 10분 후, 부모님 침실로 다시 가 보니 아빠는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계셨다! 아빠의 그런 모범에 내 간증이 더 강해졌다.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계셨던 것이다.

젠 헨슨, 미국 아이다호



## 성전 결혼

부모님이 두 분 사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을 때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두 분은 14살 때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성장하고 공부하셨다. 시간이 지나자 우정은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했고, 두 분은 성전에서 결혼하셨다. 나도 부모님의 모범을 따라 성전에서 결혼할 계획이며, 부모님처럼 행복과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빠사레 애나 마리아, 루마니아 프라호바





##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님의 관계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 부모님은 영이 거하는 가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가족 경전 공부, 가족 기도, 가정의 밤을 가장 우선시하신다.

어머니는, 최근에 이혼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방문 교사로 부름을 받으셨다. 집에 오면, 어머니는 자주 그 자매님의 어린 두 아들을 돌보고 계셨다. 이따금 우리는 심부름으로 그 자매님의 집에 들렀고 그럴 때면 어머니는 문에 쪽지를 남기셨다. 나는 어머니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모로나이사 7:45)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셨다. 두 분의 모범 덕분에 나 역시 인생에서 배움을 가장 우선시해 왔으며 부모님의 본보기에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형제와 결혼하게 되었다.

레이철 닐슨, 미국 유타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

아빠는 무엇이든 잘 고치신다. 내가 십 대일 때 어찌면 그렇게 물건을 잘 수리할 수 있으시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는 기도를 드린 다음,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란다.”

아빠의 모범을 통해 나는 겸손하고 하늘의 영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엄마는 낙담할 때 구주께 치유와 화평을 구하셨다. 내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엄마는 속죄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권고하신다. 나는 청년 성인으로서 엄마가 보이신 의로운 모범에 따라 계속 구주께 화평과 위안이 되는 사랑을 구한다.

이삭 말므, 스웨덴 예셰핑



## 거룩한 성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순수한 사랑을 내게 심어 주셨다. 나는 엄마가 불러 주시는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 노래를 통해 그분에 대해 알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부모님이 봉사와 아울러 교회 모임과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시며 보이신 모범에 크게 감명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말린 오르테가 바스케스, 니카라과 마나과

# 새로운 목적지

아만카이 코테츠카 미노

**때**로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 비행처럼 느껴진다. 나의 어머니는 에콰도르 사람이고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다. 나는 에콰도르에서 태어났지만, 열 살 때 우리 가족은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2년간 살았다. 열두 살 때 우리의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는데 이번에는 폴란드행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가족 가까이에서 머물며 안정된 삶을 바랐고 작별인사를 그만 하고 싶었다.

## 장로들과의 첫 만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 보니 두 청년이 서 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문을 닫아 버렸다.

“문을 다시 열고 죄송하다고 말하렴.” 집안 뒤쪽에서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단다!”

나는 머쓱해하며 문을 열었다.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중얼거리자,

아버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믿음이 궁금하군요. 들어오시지요.” 하고 권하였다. 두 청년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나는 열세 살이어서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에 마지못해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다.

선교사들은 넉 달 동안 우리 집을 방문하며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가르쳤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의 용기를 존중하며 경의를 표합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종교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고, 다시는 그 장로들을 보지 못했다.

##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

2년이 지나자 나는 변화하는 가정 상황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가 일을 찾기 위해 폴란드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떨어져 지냈다. 나는 절박함을 느껴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갈링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더구나.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다.”라고 알려 주셨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아셨지만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응답을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것이다.

**나의 인생은 끝없는  
비행기 여행 같았다.  
평온과 안정을 동경했지만  
주님께 진심으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주 금요일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그 전도자들에게 진심 어린 환영과 웃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만, 저는 절대 물몬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튼, 이 장로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6개월에 걸쳐 나를 가르쳤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쿠키를 여러 번 먹고 수많은 질문이 오간 후에 가슴 깊숙이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풀리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인생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 같았다. 매료된 나는 장로들의 말과 물몬경이 참된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여쭙어 보라는 장로들의 부탁대로 마침내 실행해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었다.

**확인**과 **망설임**

기도하며 경전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교리는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확고한 증거가 필요하고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에 나는 몇 달 동안 망설였다. 그러다 요한복음 20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잘못과 그릇된 결정이 조금씩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경전은 여행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혔고 기도도 멈추었다.

그 기도는 내가 교회로 돌아오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주 일요일에 나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했다. 다음 날 나는 침례를 받기로 다시 결심했다.

주님은 내가 한때 참되다고 알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힘든 과정 내내 나를 도와주셨다. 이제 나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달콤한 축복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응답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며, 그 모든 고통을 견디는 동안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고 보호해 주셨다. 이 과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과 속죄의 의미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2011년 4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 이후로 내 비행기는 다시 이륙하여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과 그분께서 내가 사는 동안 겪게 하신 상황들에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 덕분에 나는 삶이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데려다 주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 비행기가 언제 다시 이륙할지는 모르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새로운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곧은 길이라는 것이다. ■

*글쓴이는 프랑스에 산다.*



29절에 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구주의 말씀이 마침내 내 영혼에 울려 퍼졌다. 나는 침례 받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침례를 받을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 발전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침례일을 앞두고서 나는 애석하게도 내 대답에 대한 확신을 잃고 말았다. 세상의 일에 빠져들었고 침례 받기로 한 나의 선택을 내가 사랑하는

**회개**의 **축복**

내 인생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눈물과 실망이 따랐다. 우리 가족이 왜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바로 전에 부모님은 폴란드를 떠나야 했고 나는 다시 이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마침내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속죄 권능으로 강화되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며, 개인적인 소망이나  
선천적 능력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가 보기에 교회 회원 중 상당수가 속죄에 수반되는,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권능보다는, 구속하고 정결하게 하는 권능에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교리의 근본이자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 속죄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바라신다는 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삶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구주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구속의 권능으로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은 속죄가 죄인을 위한 것임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속죄가 또한 성도, 곧 순종적이고, 합당하고, 양심적이며, 더 나아지고 더욱 충실하게 봉사하고자 애쓰는 남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수한 용기, 의지, 훈련, 그리고 분명히 제한된 능력으로 좋은 사람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가는 여정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주의 복음은 인생에서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선을 행하며 선하게 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속죄는 우리가 악을 극복하고 피하며,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필멸의 여정 내내 우리는 구주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의 구속 권능과 가능하게 하는 권능이 서로 별개이며 분리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속죄의 영역은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인생의 단계마다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필멸의 여정에서 필수인 두 가지 요소, 즉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도가 되는 것과 악을 극복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속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필멸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개인적 의지와 결심, 동기 부여, 효과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니파이후서 2:8)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은혜와, 가능하게 하는 속죄의 권능

우리는 영어 성경 사전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경전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은혜는] 신약전서, 특히 바울의 기록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주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도움이나

힘을 얻는 신성한 방편이다.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영원히 사는 몸을 얻는 것, 즉 인류가 불멸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속죄 희생으로 가능해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자기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훌륭한 일을 이룰 힘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남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게 하는 이 은혜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능이다.”(Bible Dictionary, “Grace”; 강조체 추가)

은혜는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도움, 곧 하늘의 도움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속죄 권능으로 강화되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며, 개인적인 소망이나 선천적 능력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 경전 공부를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곤 합니다. 예컨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성구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앞이라.”(니파이후서 25:23) 우리가 경전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가능하게 하며 강화하는 힘”이라고 적어 넣는다면 속죄의 이 핵심적인 특징을 더 많이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니파이의 모범

필멸의 여정은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그 여정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속죄의 힘을 올바로 인식하여 그 권능으로 변화된 제자와 선지자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권능을 더 잘 깨닫게 될 때, 복음을 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관점이 생기면, 우리 자신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니파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구주의 힘을 제대로 알고 그에 의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리하이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마엘과 그의 권속에게 여행에 합류하도록 권유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니파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광야로 여행하던 일행 중 레이맨과 다른 몇몇이 모반하자 니파이는 형제들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니파이의 형들이 여행 중에 끈으로 니파이를 묶고 죽이려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니파이의 기도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니파이전서 7:17; 강조체 추가).

만약 제가 형들에게 묶였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니파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니파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속죄의 힘을 이미 알고 이해했으며, 체험을 해 보았기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니파이를 동여뒀던 끈이 그의 두 손과 손목에서 마법처럼 저절로 풀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타고난 능력 이상의 끈기와 개인적인 힘으로 축복을 받아 그때 “주의 힘을 입고”(모사이야서 9:17) 애를 써서 끈을 당기고 비틀었을 때 마침내 말 그대로 끈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화가 우리 각자에게 암시하는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일상 생활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속죄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휘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바꿀 힘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14 참조)

### 구주께서는 알고 이해하십니다

앨마서 7장에서 우리는 구주께서 능력 주시는 힘을 어떻게 그리고 왜 제공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1~12; 강조 추가)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괴롭히는 정서적 환난과 고통,  
 불평등과 불공평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여정에서 겪는  
 온갖 육체적 고통이나 영혼의 고뇌,  
 영적 번민이나 연약함 중에서 구주께서  
 먼저 겪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약해진 순간에는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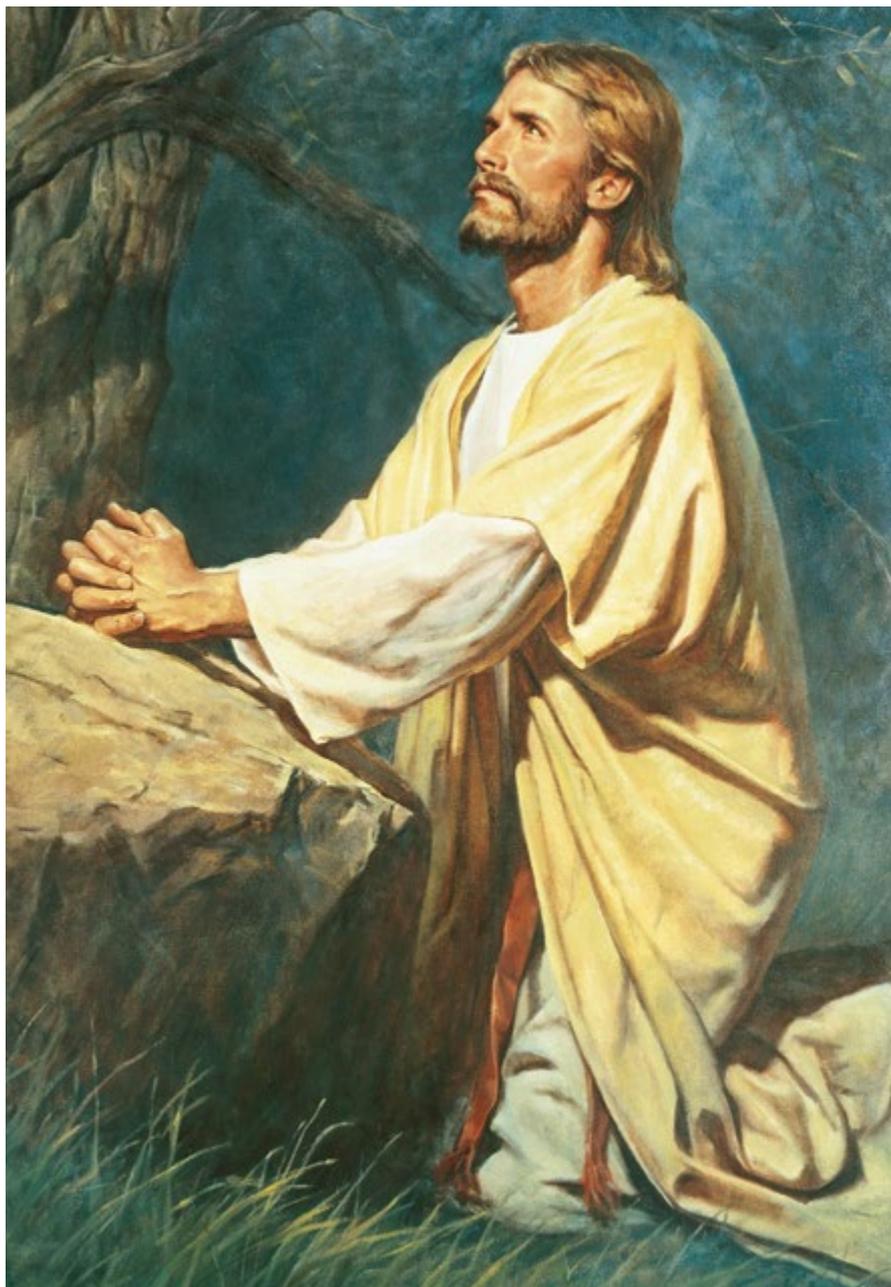
절규할 것입니다. “그 누가 이해하라,  
 어느 누가 알아줄까?” 어찌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서 느끼시고 우리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분은 최후의  
 값을 치르고 짐을 지셨으므로 우리와  
 완벽하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손길을  
 뻗어 어루만지고 구해 주시며,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게 해 주시고 자신의 힘에만  
 의존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헤쳐 나가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희생에 대해 감사와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구속 권능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분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권능은  
 실존하며 우리도 누구나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필멸의 여정을 헤쳐 나가는 동안  
 “주님의 힘을 입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  
 12~19쪽





랜들 엘 리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 누가 준비되었는지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만찬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들을 만나서 졸업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8~10명 정도의 다른 반 친구들과 한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렉 링크라는 옛 친구가 20대 시절에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뒤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아무도 내게 물문경을 주지 않았었니? 내가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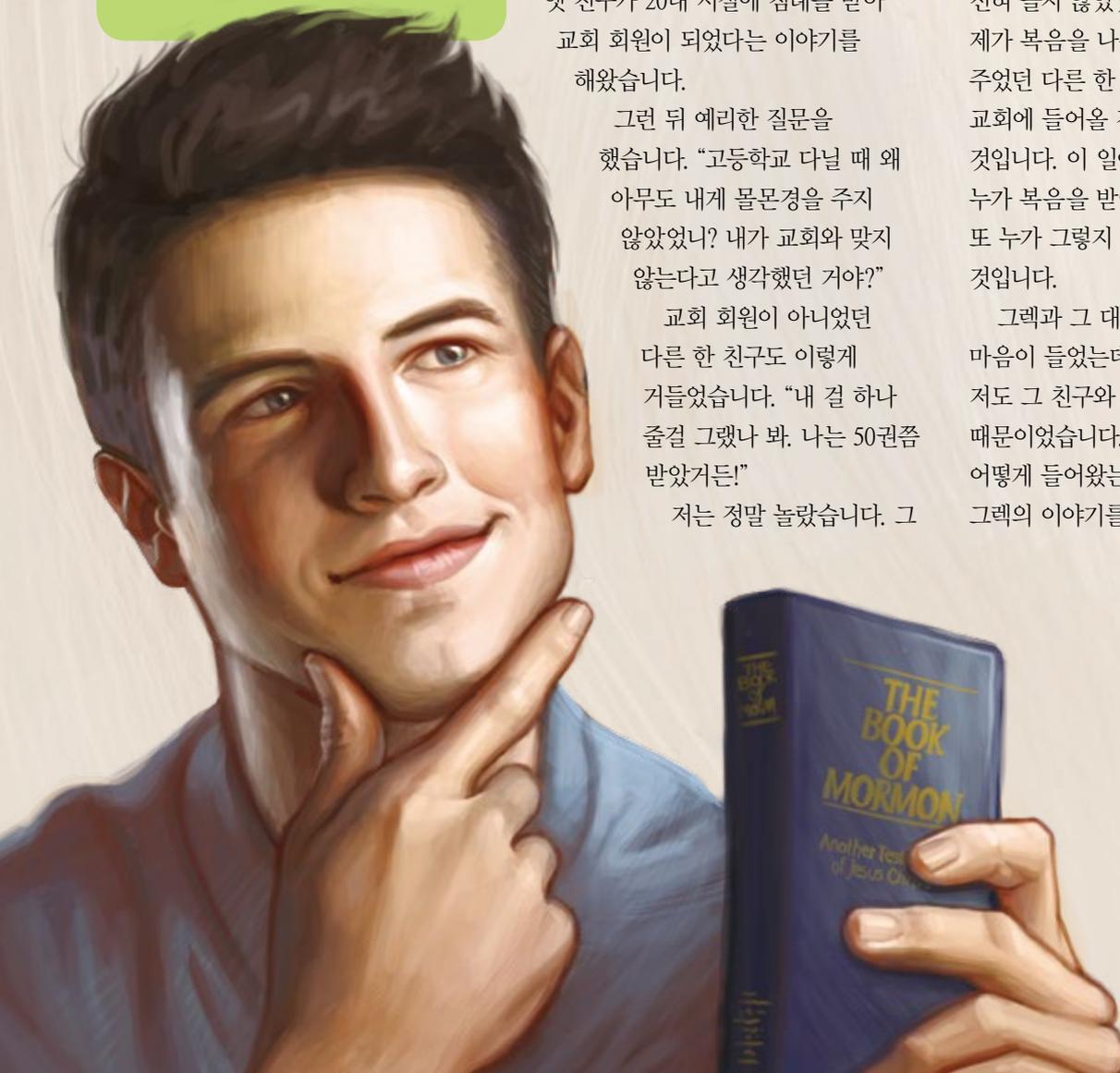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다른 한 친구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내 걸 하나 줄걸 그랬나 봐. 나는 50권쯤 받았거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렉이 침례를 받아 성공적인 동기 부여 강사가 될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렉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그렉은 파티를 좋아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교회 이야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복음을 나누고 물문경을 한 권 주었던 다른 한 친구에 대해서는 언젠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렉과 그 대화를 한 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많은 사람처럼 저도 그 친구와 복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렉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11살 때 가족과 함께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를 왔지만, 24살이 될 때까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왜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걸보기에는 좋은 구도자감이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싸우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특히 싸움을 벌이고 어려움을 자초했다.

후기 성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한 명만 내게 교회에 대해 얘기했다. 그것도 그 친구가 아기를 봐 줄 때 물문경을 읽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놀려 댔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는 여러 가지에 호기심이 있었다. 어머니는 동네의 다른 교회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왜 미대륙에는 오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나를 보고 웃었고, 그 후로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몇 년 후, 나는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들러 보기로 했다. 미대륙에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한 입체상들이 거기 있었다. 어렸을 때 그것에 대해 질문했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그때 영이 내게 임했고, 나는 내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때 본 친구들의 모범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사실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후기 성도였다. 랜디 리드와 그의 아내도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두 사람은 항상 훌륭한 모범이었으며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 덕에 나중에 나는 큰 영향을 받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참되다고 랜디가 믿었다면, 중요한 걸 거야.'

친구들이 당시에 복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전해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다. 당시에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 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일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충만한 진리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준비될 지 알고 계시며,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해 우리가 그분의 지시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준비된 사람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고 말씀하신 그분의 메시지에 응답할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을 나눔”, 리야호나, 2002년 1월호, 9쪽.

제 모범이 그렉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더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물문경을 나누었다면, 아니 그렉을 활동에 초대만 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일찍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선교사로 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복음을 나누는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따라서, 나누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말하면, 누가 준비되고 또 누가 준비되지 않았는지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깊숙한 곳에 그런 관심이 감춰져 있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

# 용감하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낮** 선 사람과 복음을 나누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임 선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친구들에게 교회와 몰몬경, 또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 알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흥미 없어 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미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아마 친구들은 그저 “고맙지만 싫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좋아, 더 많이 이야기해 줘.” 하고 대답하더라도

놀라지는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양육하고, 그분의 교회로 안전하게 데려오도록 권한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나누는 일은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벨라드 장로님은 “선교 사업은 어렵고 때로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벨라드 장로님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여** 복음을 나누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한다.(브라질의 한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짧은 기사를 참조한다.) 또한 준비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둘째, 모범을 보인다.** 표준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친구들은 여러분이 발하는 빛을 볼 것이다. 여러분이 합당하면 용기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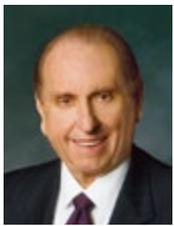


또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나누기가 두렵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사랑의 영과 관심으로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의 기분은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을 아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이 지시하는 대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sup>1</sup>

복음을 나누는 의무는 여러분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게 하십시오. ■

주

1. 엠 리셀 벨라드,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8~40쪽.



### 믿는 자의 용기

“우리의 신념에 용기를 갖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16)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와 같은 용기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디모데전서 4:12)는 바울의 권고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9쪽.

##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마리아나 산토스

**우**리는 스테이크 연합 청소년 대회에서 모두 물문경을 받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권고를 받았다. 나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게 주고 싶었다.

그 가수가 내가 사는 도시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각 공연에는 15명의 팬을 뽑아서 무대 뒤에서 그 가수를 만날 기회를 주는 추첨이 있었다.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추첨권을 넣었다.

공연 2주 전에, 나는 물문경에 내 간증을 쓰고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첨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다.

“아멘”을 하고 나자마자,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 가수의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당첨되었다!

공연 날 무대 뒤에서 나는 그 가수에게 물문경을 주었다. 그는 그 책을 펴고 내가 쓴 간증을 읽었다. “가치 있고 유용한 선물을 드리려고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가격보다는 내용이 값진 것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물문경이에요.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책을 읽으신다면, 이 책은 오빠한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거예요.”

그는 나를 안아 주더니 그 책을 읽겠다고 말해 주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물문경을 유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드문 경험이다. 그러나 물문경을 나누는 일은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학교 친구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다.

물문경을 주고, 간증을 나누며, 교회에 대해 말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글쓴이는 브라질에 산다.



# 선택은 그들의 몫임을 명심하라

선택의지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유한 사람들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알아보라고 권유할 때,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권유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의지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성공은 그들이 보인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려는 여러분의 결의로 측정된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나 침례를 받은 사람 수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교 사업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반응보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에게도 선택의지가 있음을 명심한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자주, 또 모든 사람에게 권유한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거나 없을지 미리 알기란 불가능하므로, 영의 속삭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주, 또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권유한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라고 권유할 때 성공하는 것이다.

## 친절함을 잃지 않는다.

더 알아보라는 권유를 거절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계속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한다. 표준을 높게 유지하는 한 우정을 유지한다.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인다.

## 충실함을 유지한다.

구주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마태복음 5:16)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면 여러분은 결국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게 될 것이다.



## 믿음을 전하려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선택과 타이밍을 존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 스스로 택할지이다.’(교리와 성약 37:4)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사람과의 우정이나 사랑의 유대를 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할 때 그 권유가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주님이 이를 승인하심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느낌 덕분에 믿음을 나누려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9쪽.

###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떤 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조언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의 10쪽에 나오는 10가지 좋은 방안을 살펴본다.

#### 끈기와 참을성을 잃지 않는다.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때로는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권유를 많이 해야 하기도 한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속 친절함을 유지하며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은 여러분의 노고를 아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98:2 참조) ■

## 물고 또 물었어요

메이리 수사나 다 실바 호사

**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일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페인어 수업에서 티아고라는 남자아이를 만났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학교에서 집까지 자주 함께 걸어 다녔다. 어느 날, 지은 지 얼마 안 된 후기 성도 예배당을 지나던 길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야”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소개하고 복음 덕분에 가족과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려 주었다. 그런 후 돌아오는 일요일 오전 9시에 있는 모임에 초대했다.

일요일이 되어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초대했다. 이러한 과정이 두세 달간 매주 계속되었다. 친구는 늦잠을 잤다, 피곤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오지 못한 핑계를 댔다. 그래도 나는 계속 초대했고 친구도 언짢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예배당 뒤쪽 긴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임이 시작하기 몇 분 전이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 쪽을 바라보니 티아고였다!

친구는 “언젠가 올 거라고 약속했었지?”라고 말했다. 티아고는 성찬식에 참석했고, 놀랍게도 나머지 모임에도 계속 머물렀으며 선교사에게 소개하자 기뻐하는 듯 보였다. 티아고는 선교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티아고가 배우고 있는 진리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티아고의 질문에 답하고 간증을 전했다. 마침내 티아고는 간증을 얻고 교회에 가입했다.

지금 나는 브라질 산타 마리아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내가 선교 임지로 떠나기 전에 티아고도 전임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최근에 티아고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나를 교회에 오도록 몇 번이고 초대해 줘서 고마워. 영원히 감사할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매일 복음을 나누고 있고 또 티아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무척 행복하다.

글쓴이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이다.

일상 대화에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  
다음의 11가지 쉬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복음을 나누고 싶지만, 걱정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일은 단지 친구들에게 선교사와 만나도록 권유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기”(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년], 1쪽)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팀 동료에게 앞으로 전진할 기회를 주려면 언제 어떻게 공을 패스해야 할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배우라고 권유하는 것은 공을 패스하는 것과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득점할 기회를 주는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영감을 얻도록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친구들의 관심사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응용하십시오. 그런 후 친구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친구를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한다**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상호 향상 모임에서 활동으로 운동을 할 거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번이 그 친구를 초대할 완벽한 기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연차 대회를 함께 보자고 권유한다.**

학교에 가는 동안 MP3 플레이어로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친구가 무엇을 듣느냐고 묻습니다. 친구에게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친구가 물어볼 것입니다.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에 관해 설명해 준 후, 친구에게 4월에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싶는지 물어봅니다.

**리아호나의 기사를 나눈다**

리아호나의 최근호 기사를 보다가 친구와 한 대화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잡지(또는 온라인 링크)를 주고 그 기사를 읽어 보도록 권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물문경에 관해 이야기한다**

와드에서 올해 말까지 물문경 읽기를 목표로 잡았기에 여러분은 경전을 학교에 가져갑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책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문경이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고 그 책에 대한 간증을 나누십시오.

본 기사 뒷부분에 나오는 케니스의 이야기를 읽고 그가 학교에서 물문경을 가진 교회 회원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권유하고 확인한다**

“우리가 함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고, 권유하고, 확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화평과 목적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엠 렉셀 벨라드 장로, “확인하기”,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1쪽.**



**교회 무도회에 친구를 초대한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놀자고 하는데, 그날 밤에 교회 무도회가 있습니다. 그 제안을 그냥 거절하기보다는 친구를 무도회에 초대하십시오!

**친구를 교회에 초대한다**

여러분은 일요일에 공과 일부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주말 계획을 물어보면 일요일 계획을 건너뛰지 말고 교회에서 공과 중 일부를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친구는 궁금해할 것이므로 여러분은 친구에게 함께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 보라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Mormon.org 사이트를 보여 주십시오**

친구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Mormon.org 사이트를 보여 주십시오.



## 개종으로 가는 길의 작은 발걸음

**새** 학교 첫날에 다른 아이들과 다른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그 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다른 학생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다. 그 아이의 사물함이 내 사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 그 아이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괜찮은 아이였지만, 욕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내 믿음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가르치는 표준을 설명해 주자 그 예는 무척 관심 있어 했다. 나는 그 친구를 몇 주 동안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했고 그 예는 욕하는 버릇을 고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나중에 나는 그 친구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신앙에 충실함 소책자를 주었다. 다음 날, 친구는 학교에서 두 소책자에서 새로운 것을 아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 예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한 후 정소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한나, 나도 침례받을 수 있나?”라고 물어왔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나는 누군가가 교회에 가입하도록 도운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내 친구의 손을 잡고 청남 회장단에게 데려갔고, 그분은 내 친구가 선교사를 만나 침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친구가 침례받을 결심을 하자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고 그 친구가 개종의 길을 가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나는 곧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가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다.

해나 크리스텐슨, 미국 아이다호

### 문자 메시지로 경전 구절을 나눈다

아침 경전 공부 시간에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를 생각하다가 좋아할 만한 경전 구절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

아빠가 이번 주에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음식인 스파게티를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새로운 전학생을 발견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에 초대하기로 합니다. 그날이 월요일 밤일 경우, 식사 후에 가정의 밤을 함께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큰 활동을 계획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회원 친구 중 몇 명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왜 봉사하는지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 함께 봉사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준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왜 특별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지 물어보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주고 그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얼마나 더 행복함을 느끼는지 말해 주십시오.

본 기사에 있는 해나의 이야기를 읽고 이 소책자를 친구와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아보십시오.



## 우리 종교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까?

에이프릴은 무언가가 달랐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좋은 차이였다. 나는 마침내 그 애가 후기 성도임을 알았다.

하루는 점심 시간에 에이프릴의 책들이 조금 쌓여 있는 책상에 걸터앉았는데 책더미 맨 위에 물문경이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물문경을 들어 올렸다.

몇 분 후에 에이프릴이 점심 식판을 들고 오자 나는 “네 책을 보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 애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다소 놀란 표정이었다.

몇 쪽을 읽어 보는데 흥미가 느껴졌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스스로 과학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읽은 내용에는 진실성이 느껴졌고 실제로 일어난 일 같았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내 영혼을 뒤흔들었다.

점심 시간이 끝날 무렵 에이프릴에게 책을 돌려 주고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갔다. 나는 물문경에서 읽은 내용에 흥미를 느꼈지만, 에이프릴에게 말하기에는 수줍음이 많았다.

몇 주 후, 자습 시간에 에이프릴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오더니 “너 정말 우리 종교에 대해 배우고 싶니?”라고 물었다. 관심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하자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모임이 있어”라고 말했다. “네가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나는 모임에 갔다. 그 모임에서 선교부 회장님은 교회의 몇 가지 기본 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모두 일리가 있었다. 나는 곧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했다. 곧바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금식과 기도를 하며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후로 내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좋은 변화 말이다.

케니스 허스트, 미국 앨라배마

## 확인을 잊지 않는다

권유한 후 다음 단계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들은 공을 패스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오픈 찬스를 만듭니다.

확인이란 여러분이 나눈 경전 구절을 반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거나 교회에 함께 다녀온 후에 친구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것처럼 단순한 일입니다.

확인이 한 청년의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려면 케니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 알아보라고 권유하고 나서 추후에 확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소망을 느끼고 앞으로 편하게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



그것은 루이사가  
꼭 지켜야 하는  
비밀이었는가?

# 비밀을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나 너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중** 이 울리자 루이사는 수학책을 덮었다. 루이사는 수업 시간에 문제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뛰쳐나갔다. 금요일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때는 루이사도 주말이 오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걱정밖에는 아무런 기분도 들지 않았다. 점심시간 이후로 말이다. 점심시간 때 제일 친한 친구 캘로타가 물었다. “너 비밀 지킬 수 있어?”

당시 루이사는 몸을 숙이며 고개를 끄떡였다. 비밀을 잘 지켰던 루이사는 캘로타가 틀림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잘생긴 남자아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캘로타의 비밀은 재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루이사는 어떤 목소리에 생각을 멈추었다. 눈을 깜박이며 의자에 앉은 채 위를 올려다보았다. “루이사, 숙제에 관한 질문이 있는 거니?” 하고



# 말하는 것



“친구는 걱정하고 친구는 사랑을 보입니다. 친구는 경청합니다. 또한 친구는 도와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9쪽

선생님이 물으셨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모두 교실을 떠난 상태였다.

루이사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누군가에게 막 털어놓아야 할 참이었다. 하지만 캘로타는 비밀을 지켜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버스를 타야 해요.” 루이사는 급히 대답하고는 외투를 입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총총 사라졌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루이사는 가슴이 두근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기가 힘들었다.

캘로타의 비밀에 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에 캘로타는 자기가 어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이사는 들은 내용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 애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루이사는 캘로타가 그같이 겁나는 일을 저지른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캘로타는 루이사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캘로타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루이사는 버스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친구가 제게 화를 내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친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루이사가 집에 도착하면 엄마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루이사는 쌓인 눈을 바라보자 지난 주에 캘로타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하던 눈싸움이 떠올랐다. 정말 재미있었다! 루이사는 캘로타와 함께 즐겁게 했던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같이 시간 보내기, 하이킹, 숙제하기, 운동하기.

루이사가 캘로타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바람에 캘로타가 더는 루이사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루이사는 속이 더 비틀렸다.

그러다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캘로타에게 가장 좋은가이지, 캘로타가 루이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는 아니었다. 캘로타에게는 무사하도록 도와줄 참된 친구가 필요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루이사는 알고 있었다.

루이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엄마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다. 루이사는 또한 캘로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으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캘로타도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루이사는 현관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루이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엄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캘로타가 결국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루이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다. 그녀는 참된 친구가 되기로 했다.

어떤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중요했다. ■

# 언제 말해야 할까요?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 만일 누군가—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다면  
남의 약을 먹고 있다면  
이상한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냄새 맡고 있다면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면  
어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을 한다면

## 만일 누군가—

위에서 말한 어떤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옷을 벗은 사람들 사진을 보여 준다면  
자기 몸을 보여 주거나 만져 보라고 하거나 그들이 여러분 몸을 보거나 만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에 대해 비밀을 지켜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으로 못살게 굴거나 예의 없게 말하면

## 만일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협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면  
옳지 않아 보이거나 “아차” 하는  
느낌을 준다면

성신의 속삭임을 잘 듣고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십시오!

##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보호자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교회 교사나 지도자  
형, 누나 또는 오빠, 언니  
의사 선생님  
어른들께 말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비밀을 품고서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이 할 일을 알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얻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세요.

용감해지세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자기 의견을 똑똑히 말하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증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 우리는 왜 연차 대회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연차 대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6~8쪽에서  
발췌.

삽화: 앤드루 보슬리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영을 느낄 것임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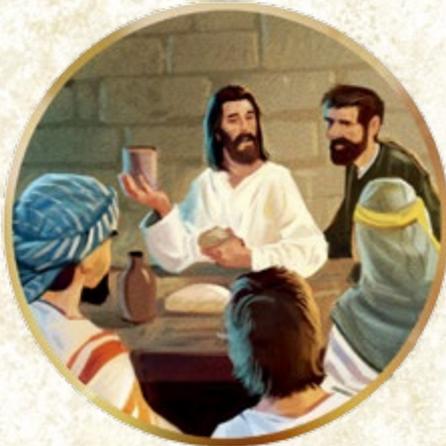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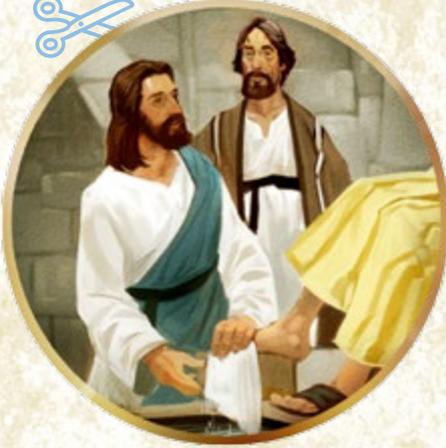
우리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화되고 간증이 더욱 깊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대회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다는 진정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에 대해 더 배우고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 이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부활절 전 주 일요일에 1번을 시작한다. 매일, 예수님에 대해 읽고 질문에 답한다. 그런 다음 거기에 맞는 사진을 오려 도표에 붙인다.



1.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오늘 친구에게 봉사하거나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해 가르치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고 말씀하셨다. 성찬식에서 더욱 경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3.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속죄를 시작하실 때, 비록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시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누가복음 22:42)라고 기도하셨다. 교회, 학교, 집에서 더 순종적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 준비하기

4

4.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을 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34).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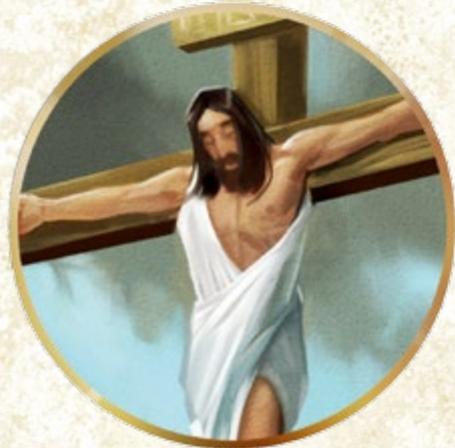
5.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뒤에 어머니가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7)라는 말로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부탁하셨다. 부모님이나 남을 돌보는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



6

6.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 더욱더 뜻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 복음 20:27). 부활절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7



# 친구를

리차드 엠 롬니의 인터뷰에 근거함  
교회 잡지

**제** 이름은 매그놀리아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쓰는 와드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아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반에 왔습니다. 미아는 영어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미아가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아의 통역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여러 가지 공통점

우리는 둘 다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둘 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특히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를 좋아합니다. 또 가정의 밤과 리아호나 기사를 읽는 걸 좋아합니다.

## 따라잡기

미아를 위해 통역할 때 처음에는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은 제게 시간을 주기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미아를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통역자는 다른 언어로 하는 말을 번역해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여러분이 한 일을 잘 떠올려서 이야기와 사진을 부모님의 허락서와 함께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에 접속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매그놀리아**

# 이해함

## 도움을 주는 속삭임

제 이름은 미아입니다. 부모님이 스페인어를 하셔서 스페인어를 쓰는 와드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그놀리아는 제가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는 옆으로 와서 제 귀에 영어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미아와 매그놀리아의 조언  
누군가

- 교회나 학교에 새로 왔다면,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도와준다.
-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으면, 같이 가자고 한다.
- 따돌림을 당한다면, 편을 들어 준다. 선생님께도 알린다.
- 외로워 보이면, 함께 놀자고 한다.
-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에서 같이 놀자고 한다.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면, 통역을 해 준다.

## 좋은 친구

초등학교 끝난 뒤,  
매그놀리아에게 친구가  
되어 주겠느냐고 물었더니  
매그놀리아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그놀리아는 저의  
친구이자 저의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매그놀리아는  
제가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도와주었습니다.

## 예수께서 하셨을 일을 하는 것

매그놀리아가 저를 도와주었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야 할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구주가 내 곁에 계시면(If The Savior  
Stood Beside Me)”(Friend, Oct. 1993,  
14) 노래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

미아

#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

##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란 특별한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폭풍우나 진주처럼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44~46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다른 비유도 찾을 수 있나요?

### 진 빙햄

**예**수님은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도 힘을 잃지 않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폭풍,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을 때, 현명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워 두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워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강한 간증을 쌓으면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견뎌 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반석인가, 모래인가?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활동들을 쪽지에 적고 돌아가며 그중 하나를 골라 소리 내어 읽은 후, 그 일을 할 때 왜 우리는 집을 반석에 짓는 것과 같은지, 또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지를 토론해 본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함께 경전 읽기	시험 볼 때 부정 행위 하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새로 만난 사람을 함께 참여시키기
교회 참석	나쁜 말 하기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동생과 같이 놀아 주기
숙제하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
진실을 말하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져가기
누군가 따돌림을 당하는 동안 잠자코 있기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기
연차 대회 방송 듣기	소외된 사람을 참여시키기

### 돌멩이에 그림 그리기

매끈한 돌멩이를 고른다. 그 위에 매직펜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 위에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돌멩이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 성구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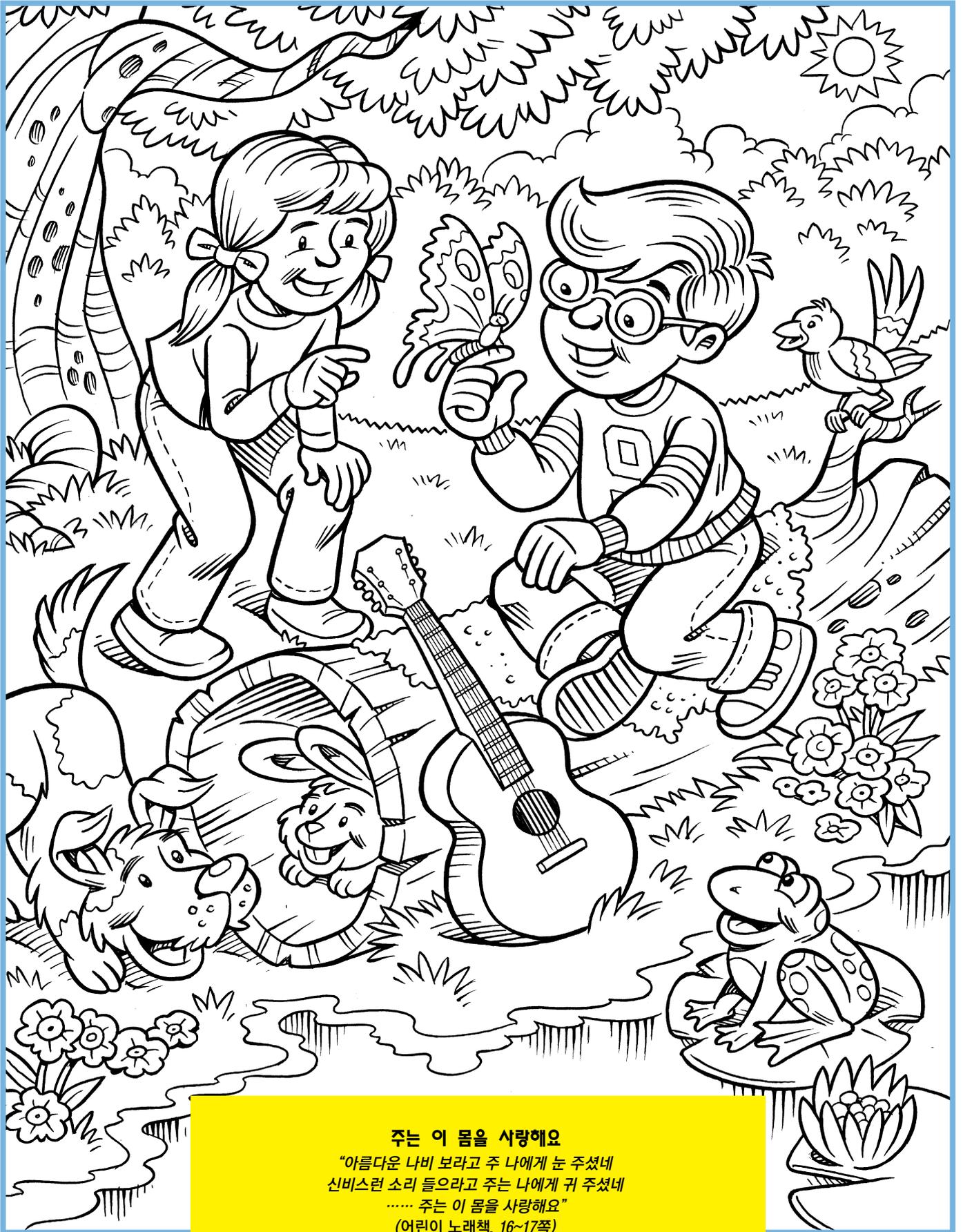
물문경은 우리가 신약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힐라면서 5장 12절을 읽는다. 이 성구에서 반석이란 낱말의 뜻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성구를 찾아보기 위해 경전 안내서에서 "반석"을 찾아본다.

### 가족과 대화하기

마태복음 7장 24~29절을 함께 읽는다. 이 이야기에 관한 그림을 그려도 좋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어떤 일들을 우리 인생의 비 또는 바람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 결정이 얼마나 인기 있는 것인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어떻게 비슷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보호하고 강하게 해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쌓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노래: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어린이 노래책, 132쪽)

성구: 마태복음 7:24~29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나비 보라고 주 나에게 눈 주셨네  
신비스런 소리 들으라고 주는 나에게 귀 주셨네  
……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17쪽)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년 회장

# 별 아래서 들은 경전 이야기



“경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영의 인도로써 경전이 참됨 알리라”(어린이 노래책, 66쪽)

어렸을 때 저는 여름철에 형제들과 야외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현관에 침낭을 펼 후 하늘의 별자리를 찾고 잠이 들 때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래리 오빠와 저는 현관에 나가서 잠자리를 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날 밤에는 제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리하이와 그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에 초등학교에서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긴 했지만, 오빠가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자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좀 더 실감이 났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고 알려 주는 성신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집에서 몰몬경 이야기 그림책을 찾아냈습니다. 책을 펼쳐 보기 시작하는데,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제가 간증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노력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떤 크고 강한 답을 얻지 못해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게 제가 간증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다 저는 오빠가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떠올리며, 제가 교회가 참됨을 진작에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증이 꼭 단 한 번의 어마어마한 순간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대개 성신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참되다고 속삭여 주는, 수많은 작고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

# 토요일에 푹 자고 일요일에 활짝 웃어요

미쉬 바보사  
실화에 근거

“교회에 갈 때면 늘 행복을  
느껴요”(Children's Songbook, 157)

**마**라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마라가 손을  
들어 질문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지요. 동생인  
마르셀라에게 좋은 말을 해 주면,  
마르셀라는 방긋 웃어요.

그러면 마라도 따라서 활짝 웃지요.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도울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매주에 한 번, 웃음을 짓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마라와 마르셀라는  
그때가 제일 피곤했어요. 교회에 갈  
준비를 위해 서두르다 보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졌죠. 게다가 교회에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족히

2킬로미터는 걸어야 했지요. 마라와  
마르셀라는 자주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간 앞 부분을 놓치고  
말지요.

“모임 시작 시간에도 너희  
얼굴을 꼭 보고 싶단다.” 하루는  
리마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리마 자매님은 브라질에





있는 마라의 와드 초등학교  
회장님이세요.

마라도 제 시간에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마라는 다음 주  
토요일 밤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라는 저녁 식사 후에 몰래  
잠자리에서 과자를 먹는 대신, 이를  
닦았어요. 거의 날마다 엄마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가라고  
타이르셨지요. 그런 엄마의 말씀에도  
마라와 마르셀라를 밤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귓속말을 하며 놀았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될 때까지  
밤늦도록 잠을 안 잔 적도 있었죠.  
그럴 때는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오늘 밤, 마라는  
잠옷을 입고 곧장 침대 속으로 쪽  
들어갔어요. 아직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말이지요. 마라는  
물문경 앞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뭐 하고 있어?” 마르셀라가  
물었어요.

“시험해 보는 거야.” 마라가  
대답했어요. 마라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생각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벌써 졸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교회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은  
찌뿌둥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어요. 머릿속도 맑았고 몸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마라는 몇몇 선생님들보다도 일찍  
초등학교에 도착했어요.

리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린이들에게 것처럼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마라가 방긋 웃을 차례였죠.  
마라는 토요일에는 항상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일요일 내내 웃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거예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올슨 에프 휘트니  
(1855~1931)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솔하기에 충분히 크거나 충분히 훌륭한 책은 없습니다.

오래 전에 [다른] 교회에 속한 학식 있는 고위 성직자가 유타에 왔었습니다. …… 그는 “물론” 성찬식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주님의 만찬을 집행하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 비판할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찬식에서 포도주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을 훌쩍훌쩍 마시는 모습을 보고 몹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 즉 성경에 따르면 구주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를 사용하셨으며, 그것이 자신의 피라고, 즉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저도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실 때에 포도주를 사용하셨다고 물론경에 언급되어 있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친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즉, 다른 교회들은 서적과 전통, 인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반면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계시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어떤 사실이 책[경전]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시대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 조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27:1~4 참조]

하늘에서 전해지는 계시는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정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변화에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 교회를 통솔하기에 충분히 크거나 충분히 훌륭한 책은 없습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것이 받아 마땅한 경의를 다해 말씀드립니다. 책으로 발행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는 [동물 희생처럼; 제3니파이 9:19~20 참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선반 위에 놓아 둔 것들인 반면, 나머지 부분은 힘차고 생명력으로 가득하며 현재 상태, 즉 발전하는 우리의 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조차도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교리와 성약 1:37~38 참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죽은 글자를 살아 있는 계시에 우선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릇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2천 년 전에 유대인들과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든, 50~60년 전에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든 그것이 현재의 계시, 즉 주님께서 가장 최근에 그분께서 선택하시거나 지명하신 종들이나 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들은 분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

1916년 10월 7일에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리아호나, 2010년 6월호, 12~13쪽에 수록됨.

# 통찰



##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축복을 주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접 가족 기도와 매일 경전 읽기, 매주 가정의 밤을 이끄는 일을 주관합니다. 아버지는 …… 가족의 전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은 자녀들에게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며 복음 원리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아들딸에게 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삶에서 합당한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아버지는 복음과 관련하여 충실한 봉사의 모범을 보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 곧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름에서 결코 해임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모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85차 연차 대회

2015년 4월 4~5일: 모든 회원을 위한 일반 모임

2015년 3월 28일: 8세 이상의 청년 및 여성들을 위한 일반 여성 모임

2015년 4월 4일: 12세 이상의 청년 및 남성들을 위한 신권 모임

모든 모임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며 전 세계 집회소로 방송됩니다. 이 대회는 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실시간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으며, BYUtv, Mormon Channel 플랫폼 및 후기 성도 연차 대회 YouTube 채널에서도 몇몇 언어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의 말씀들은 LDS.org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